

정책연구
2019-20

근로생애와 고령노동

이승호 · 변금선 · 고혜진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호)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u>코호트</u> 별 근로생애의 차이	(고혜진) 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6
1. 코호트별 근로생애 분석의 필요성	6
2.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0
1. 출생 코호트의 구성	11
2. 분석 자료 및 방법	14
제3절 코호트별 노동궤적 분석 결과	15
1. 코호트별 노동궤적의 차이	15
2. 역사적 사건의 코호트별 차이: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35
제4절 소 결	39
제3장 근로생애에 따른 은퇴과정의 차이 ... (변금선 · 이승호)	42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42
제2절 은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	46
제3절 분석방법	48

1. 분석자료	48
2. 분석방법	49
3. 분석전략	51
제4절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유형화	51
1. 분석대상의 특성	51
2.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유형화	53
제5절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	59
1.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59
2.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성별 차이	62
제6절 소 결	65
제4장 근로생애의 변화가 고령자 고용에 미친 영향 (이승호·변금선)	68
제1절 연구목적	68
제2절 연구방법	70
1. 분석자료	70
2. 변수 측정	71
3. 분석방법	73
제3절 분석결과	77
1. 근로생애 특성 및 고령자 고용률의 변화	77
2. 근로생애와 고령기 고용률의 횡단적 관계	80
3. 재가중 분해 결과	85
제4절 소 결	91
제5장 요약 및 결론	(이승호·변금선·고혜진) 95
참고문헌	101

표 목 차

<표 2- 1> 연도별 평균 초혼 연령	17
<표 2- 2> 출생 코호트별 유배우율	18
<표 2- 3> 출생 코호트별 40대 중반 이후 미혼자녀와의 동거율	19
<표 2- 4> 40대 기준 코호트별 여성의 평균 자녀 수	20
<표 2- 5> 코호트별 40대 맞벌이 가구 비중(가구 단위)	24
<표 2- 6> 출생 코호트별 교육수준	30
<표 3- 1>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출생코호트 비교)	47
<표 3-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52
<표 3- 3> 은퇴과정 유형에 따른 경험한 일자리의 특성 변화	58
<표 3- 4> 코호트별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분포	60
<표 4- 1> 설명변수의 위계적 순서	76
<표 4- 2> 분석대상 코호트의 63~69세 고용률 차이	77
<표 4- 3> 분석대상 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전체)	78
<표 4- 4> 2008~2016년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성별)	79
<표 4- 5> 근로생애와 고령 고용률의 횡단적 관계(전체)	81
<표 4- 6> 근로생애와 고령 고용률의 횡단적 관계(성별)	83
<표 4- 7> 관측표본과 재가중 표본의 특성 차이	86
<표 4- 8> 고령 고용률 변화의 집계분해 결과	88
<표 4- 9> 고령 고용률 변화의 세부분해 결과	89
<표 4-10> 베이비붐 세대(1955~61년생)의 근로생애 노동계적	93

그림목차

[그림 2- 1] 1940~4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16
[그림 2- 2] 1945~49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18
[그림 2- 3] 1950~5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21
[그림 2- 4] 1955~59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22
[그림 2- 5] 1960~6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24
[그림 2- 6] 주된 일자리 종사 여부	27
[그림 2- 7]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평균 연령	28
[그림 2- 8] 출생 코호트별 40대 초중반 종사 산업	29
[그림 2- 9] 고령층 경제활동상태	33
[그림 2-10] 60대 초반경 코호트별 지난 1년간 구직 활동 여부	33
[그림 2-11] 60대 초반경 코호트별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여부	34
[그림 2-12] 외환위기 당시 30~50대의 고용률 추이	36
[그림 2-13] 출생 코호트별 40대 초중반 종사 직업	37
[그림 3- 1]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1960~2018년)	43
[그림 3- 2] 1940~54년생이 경험한 역사적 시간의 맥락 (1940~2016년)	47
[그림 3- 3] 15~50세 근로생애 근로계약 유형	54
[그림 3- 4] 15~50세 근로생애 근로계약의 분포 변화(출생코호트 차이)	55
[그림 3- 5] 51~68세 은퇴과정 근로계약 유형	57
[그림 3- 6] 51~68세 은퇴과정 근로계약 유형 분포 변화	57
[그림 3- 7] 근로생애 유형에 따른 은퇴과정 유형의 분포	59
[그림 3- 8] 근로생애 유형에 따른 은퇴과정 유형 분포의 변화	61
[그림 3- 9]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유형 분포(성별 비교)	62

[그림 3-10] 근로생애 유형 변화(성별 비교)	63
[그림 3-11] 은퇴과정 유형 변화(성별 비교)	64
[그림 3-12]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성별 비교)	64

요 약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근로연령대의 노동궤적과 고령기의 노동궤적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령자의 근로생애 전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생애 초기의 노동시장 경력은 일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근로생애 동안 누적된 경력은 고령자의 숙련 수준과 경제적 욕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 사회와 같이 분절적인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생애 초·중기의 노동궤적이 가지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기 전·후의 노동경력 특성을 비교하여, 근로생애와 고령기의 노동궤적 간 관계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 시점의 고령노동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동시에, 현재까지 관측된 청·중년기 노동궤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고령노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코호트별 근로생애의 차이

제2장에서는 생애주기 관점에 따라 코호트별 노동궤적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 조사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궤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940년생부터 1964년생 남성들은 가족을 형성하는 20대 후반 무렵부터 30대 초반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50대, 자녀 세대의 독립으로

가족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유급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가족의 생계 부양책임을 도맡아 왔다. 한편, 남성과 여성 간에는 고용률 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하여, 남성의 고용률이 현저하게 높다. 특히, 가족의 형성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측면과 맞물려 있다. 여성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은 대체로 모든 코호트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인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다만, 40대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후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50대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20대에서 30대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기도 하다. 성별 분업 구조하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출산과 자녀 돌봄이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간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1950년대생 코호트까지에 한정할 때, 평균적인 수준에서 남성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사가 다소 빨라져, 50대부터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에도 고령자들은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60대까지는 다수의 고령자가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환위기의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인다. 조직에서 요직에 포진하고 있던 1940년대생들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견고한 성별 분업 체계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성 가장의 급작스러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로, 노후 불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핵심 노동 계층을 구성하던 시기에 공격연금이 도입되긴 하였지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60대, 심지어 7대에도 적지 않은 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는 남녀 공히 혼인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균적인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인다. 30% 수준에 그치던 1940년대 초반 코호트 여성의 고용률이 1960년대생 코호트에 이르러서는 40%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게 된 40대 후반 무렵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20~30대에서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다른 한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남성들의 고용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은, 가구 단위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 면도 있어 보인다. 남녀 간 초혼 연령에 약 3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 코호트들과 달리 1950년대생 후반 및 1960년대생 코호트에서 여성들이 40대부터 50대까지 꾸준히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3. 근로생애에 따른 은퇴과정의 차이

제3장에서는 1940~54년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근로궤적을 분석하여,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고령화패널조사의 직업력조사 자료와 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해 개인이 15세부터 최장 68세(1954년생 62세)까지 경험한 취업 여부 상태 변화 배열자료를 구축하여, 15세부터 68세까지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근로생애(15~50세)와 은퇴과정(51~68세)으로 각각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는 종단적 잠재분석방법인 GBTA(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3개의 출생코호트로 구분하였으며, 1940~44년생(이후 40코호트)이

1,290명, 1945~49년생(이후 45코호트)이 1,239명, 1950~54년생(이후 50코호트)이 1,261명이었다.

15세부터 50세까지 근로생애를 유형화한 결과, 7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20대부터 일자리에 진입해 계속 일을 유지하는 유형('20대부터 근로', 27.9%)이었다. 이어서 '10대부터 근로'(27.5%), '진입 후 이탈'(10.4%), '30대부터 근로'(10.4%), '불안정 근로'(8.8%), '근로경험 없음'(8.4%), '이탈 후 재진입'(6.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0코호트는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10대보다는 20대부터 일을 시작한 유형이 더 많았고, '이탈 후 재진입 유형'과 '진입 후 이탈 유형'이 증가하고 '근로경험 없음 유형'은 감소했다.

51세부터 68세까지 은퇴과정을 유형화한 결과, 5개의 유형 - '계속 근로', '가교 일자리',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근로 안 함' - 이 도출되었으며, 60대까지 계속 일하는 '계속 근로' 유형이 34.8%, 일하지 않는 경우('근로 안 함', 27.2%), '60대부터 점진적 은퇴'(16.3%), '50대부터 점진적 은퇴'(14.4%), '가교 일자리'(7.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코호트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가교 일자리 유형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정형화된 은퇴유형인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은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50코호트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조기은퇴 유형인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은 40코호트 15.3%, 45코호트 16.8%로 50코호트(11.2%)보다 높았는데,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퇴과정은 15~50세까지 경험한 근로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른 시기부터 일을 한 경우 중고령기에도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경험한 경우 중고령기에 점진적 은퇴, 가교일자리 유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은퇴과정의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해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이 상

당히 이질적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확충과 활기찬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일과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령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근로생애의 변화가 고령자 고용에 미친 영향

제4장에서는 재가중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1940~46년생 코호트(이하 40코호트)와 1948~54년생 코호트(이하 48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가 63~69세 시기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가중 분해방법은 두 집단 간 결과변수의 차이를 설명변수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포함하는 다른 요인의 차이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여준다. 재가중 분해 분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결과변수인 고용률과 연구에서 다루는 설명변수들의 코호트 간 차이를 기술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2008년과 2016년의 시점에서 각각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2008~2016년에 두 분석대상 코호트의 고용률은 37.1%에서 47.2%로 높아졌으며, 근로생애의 노동계적 특성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두 시점에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 분석에서는 근로생애에 안정적인 고용을 지속한 집단이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40코호트에 비해 48코호트에서는 근로생애의 차이가 고령자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재가중 분해분석의 집계분해 결과에서는 두 코호트 간 고용률 차이의 61.4%가 연구에 포함된 설명변수(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 특성-결혼지위, 자녀 수, 거주지역, 노동시장 특성-주된 일자리 진입 시점, 주로 경험한 산업, 주로 경험한 종사상 지위)와

근로생애의 노동계적 변화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코호트의 고령자 고용률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성효과와 구조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출생 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계적 차이는 고령자 고용률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계속 근로한 집단들은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았고, 생애과정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한 집단들은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낮았다.

성별 하위집단에서는 집계분해와 세부분해 모두 매우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남성 고령자 집단은 구성효과보다 구조효과 크기가 훨씬 컸지만, 여성 고령자 집단은 반대로 구성효과가 구조효과를 압도하였다. 세부분해에서도 남성 고령자 집단은 노동시장 특성이, 여성 고령자 집단은 인구학적 특성이 고령자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집단 내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로생애의 노동계적이 관측된 집단의 향후 고령기 고용률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베이비붐 세대에 적용하면, 변수들의 관계 및 다른 특성들이 동일하게 고정된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생애 동안 경험한 노동계적은 고령기의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고령자의 근로생애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개인이 이전 시점까지 경험한 계적은 이후의 계적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고

령기에 진입한 출생 코호트를 비교하는 접근에 기초하여, 근로생애의 경험이 이후의 노동계적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 시기의 근로생애가 이후의 노동계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생애과정 관점을 뒷받침할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측된 근로생애의 궤적을 통해 향후의 고령자 고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지닌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인구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고령자의 노동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참여는 장기적으로 근로연령대 인구집단의 감소에 대응하고(Lee, 2010), 사회보장 지출과 관련된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Blau and Goodstein, 2010), 고령자 개인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Calvo, 2006), 서구의 많은 나라가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자는 이미 서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효과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빈곤에 처해 있고, 일하는 고령자의 상당수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이철희, 2014).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령노동이 서구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한국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고령노동은 오래 전부터 서구와는 상이한 변화 추이를 보여 왔다. 서구에서는 20세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공적연금과 같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Coile, 2015).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오히려 증가하였고(이철희, 2006),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된 2000년대 이후에도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감소하지 않았다(이승호, 2019). 고령노동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지만,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산업화가 발생한 시기에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같이 발생한 점, 서구에 비해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 급여수준도 낮다는 점이 작용하여, 서구와 비슷한 방향의 변화에도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이철희, 2006; 이승호, 2019). 이와 같은 고령노동 변화 추이의 차이는 한국이 서구에 비해 단순히 더 많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고령노동을 구성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서구의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노동참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한국의 고령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활동참여율과 같은 고용지표의 비교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비슷한 방향의 산업구조 변화, 사회보장 확대의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노동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고령노동의 변화 추이에 주목한다. 특히, Elder(1995)가 제시한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을 적용하여, 생애 초기 및 중기의 근로경험과 생애 후기의 노동참여 간 관계를 분석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는 이행(transitions)과 궤적(trajections)으로 개인의 근로생애를 분석한다. 이행은 한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Dewilde, 2003), 궤적은 다수의 이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의하면,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노동경험의 차이는 이후의 노동궤적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이며, 은퇴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파트타임이나 자영업과 같은 가교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Elder, 1995; 장지연, 2003). 개인의 삶을 종단적인 시간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는 앞서 일어난 사건이나 변화가 이후

의 삶에 미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노년기의 성과는 생애 초기부터 지속된 다양한 요인들의 누적적인 영향이 집약된 결과라는 점에서, 생애주기 관점이 유용한 분석 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노동을 분석한 국내연구의 대다수는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분절적인 사건(discrete event)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전체적인 근로생애의 흐름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고령자의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재취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홍백의·김혜연, 2010). 이러한 접근으로는 시간에 따라 다양해지는 은퇴과정의 변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한경혜, 2008).

이 연구에서는 근로연령대의 노동궤적과 고령기의 노동궤적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령자의 근로생애 전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생애 초기의 노동시장 경력은 일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Wang and Shultz, 2010). 근로생애 동안 누적된 경력은 고령자의 숙련 수준과 경제적 욕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 사회와 같이 분절적인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생애 초·중기의 노동궤적이 가지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연령대 근로경험은 고령기 이후의 노동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면서, 사회적으로 근로연령대 노동궤적의 변화는 고령자의 노동궤적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고령자를 출생코HORT로 구분한 후, 각 집단별로 근로생애와 고령기의 노동궤적 간 관계를 규명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성별 생애과정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 고령자의 집단별 차이도 같이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령자의 전체 근로생애 안에서 고령기 노동참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생애과정 관점으로 한국의 고령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코HORT별 비교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노동궤적 간 관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생애과정 관점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현 시점의 한국 사회 고령노동을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관측된 청·중년기 노동궤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고령노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석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1940년생부터 5세 단위로 구분한 출생 코호트별로 근로연령대에서의 노동궤적 차이를 살펴보고, 근로연령대에 경험한 노동경력의 차이가 고령기의 노동경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기술적으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중심으로 출생 코호트별로 특정 연령대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가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생애주기상의 특징과 어떻게 결부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사례로, 각 코호트별로 외환위기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당시에 발생한 노동경력의 차이가 이후의 근로생애 및 고령기의 노동참여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근로생애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면서, 동시에 이후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된다.

제3장은 앞서 정리한 출생 코호트 중에서 실제로 고령기의 은퇴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세 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생애의 노동경력과 고령기 이후의 노동경력 간 관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i) 집단중심 추세방법(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하여 코호트별로 개인의 고령기 진입 전후 노동궤적을 각각 유형화한 후, ii) 두 시기의 노동궤적 유형들 간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국 사회 고령자 집단의 근로연령대 노동궤적과 고령기 노동궤적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두 궤적 간 관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근로연령대의 노동계적 변화가 고령자 집단의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앞에서의 두 분석에 기초하여 근로연령대 노동계적을 변수화한 후, 재가중 분해방법(reweighting decomposition method)을 적용한다. 분석결과는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관측된 고령자 집단의 고용률 차이를, 근로생애의 노동계적 분포 변화로 인한 차이와 근로생애와 고령기 노동참여 사이의 관계 변화에 기인하는 차이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현 시점에서 관측되는 고용률을 생애과정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후의 고령자 고용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참여를 전망한다.

제5장은 앞에서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제 2 장

코호트별 근로생애의 차이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코호트별 근로생애 분석의 필요성

생애과정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연령에 주목해 왔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퇴직이 나이가 들어감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고령층의 연령 구분이 노동시장의 진입(이행)과 안정적인 적응, 퇴직에 대응한다는 주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연령에 따른 세대 구분이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령 구분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년 정도의 연령 갭이라면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에 기초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조성남·박숙미, 2002: 50).

상술한 문제의식에서 1990년대 이후 연구들에서는 코호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과 코호트, 그리고 기간 간의 효과들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령 효과가 개인 수준에서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물학적 성숙과 경험의 축적, 지위 혹은 역할의 변화 등 생애주기 상의 변화를 일컫는다면, 코호트 효과는 집합적인 수준에서 출생연도가 비슷한

집단들 간의 생애 경험 차이로 드러나는 특성에 주목한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년배로 생애주기 상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특정 시기의 특성, 역사적 사건과 경험, 사회적 제약과 기회 또한 공유한다는 것이다. 즉, 코호트 효과에서 주목하는 연구들은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달리 경험되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박재홍, 2001; 조성남·박숙미, 2002; 전상진, 2004). 그리고 이 두 효과가 합해져 기간 효과를 구성하게 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초기 연구들과 달리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짙다. 영미권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는 Strauss & Howe(1991), Howe & Strauss(2000)에 기초하여 여섯 개의 코호트, 가장 위대한 세대(1900~27년생), 침묵의 세대(1928~45년생), 베이비붐 세대(1946~64년생), X세대(1965~80년생),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 Z세대(1997~2012년생)에 기초한 세대 정의가 대체로 합의된 듯하다. 그리고 이 세대 구분에 기초하여 구성된 코호트를 기준으로, 각 코호트의 특징과 노동시장 참여의 양상, 근로태도 등에서 보이는 차이가 다방면으로 검토되어 왔다(Kowske, Rasch, and Wiley, 2010; Treuren and Anderson, 2010; Schwadel and Stout, 2012; Brink and Zondag, 2019).

국내 연구에서도 비교적 최근 연구들에서 일부 연령 효과를 세대 개념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지만(조동훈, 2015), 대체로 세대 논의에서는 코호트를 세대로 치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 연구에서 특히 주목받는 코호트는 1950년대 전후(戰後)의 베이비붐 세대이다.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주로 1955~63년생으로 정의된다. 노동시장 연구에서 이들이 주목받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생애 과정의 노동궤적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세대는 전·후의 세대(한국전쟁 세대 및 386세대)와 정치·사회적 경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세대 간 특성 비교가 주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 막대한 규모의 노령층 인구 유입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궤적을 연구한 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동균(2013)은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경제성장에 힘입

어 노동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였고, 외환위기 시기 고용 불안정이 늘기는 했지만, 자산 축적으로 세대 차원에서는 불리한 입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김수정(2018)은 가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를 구성하는 1960년대생들의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소위 ‘깁세대’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양쪽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그의 지적은 문혜진(2013)에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시장 지위 약화가 확인된 것과 상통한다. 그만큼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계적을 한 집단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은석 외(2014, 2015, 2016, 2017)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경력 변화에 대해 진행한 종단연구가 일례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산업화 시기의 핵심 노동 계층으로 노동시장에 종사하여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안정적인 종사로 요약되는 핵심 연령대 시기의 경력과 달리(김은석·장서영·심우정·오찬호·하지영·송순영, 2014), 퇴직 이후의 노동계적은 상당히 다양하다(김은석·오찬호·심우정·하지영, 2015; 김은석·양안나·오찬호·장서영·하지영·송스란, 2016; 김은석·양안나·장서영·하지영·송스란, 2017). 유사한 맥락에서 우해봉(2011, 2013)도 성, 교육 수준에 따라 중·고령자의 근로생애에 상당한 이질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코호트 내의 이질성은 코호트에 기초한 접근의 유용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는 코호트(혹은 세대)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더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문제, 계급이나 성별 차이를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철승(2019)이 주지하듯, 코호트 효과에 주목하는 접근이 코호트 간(혹은 세대 간) 차이의 문제가 다른 어떤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철승(2019)은 코호트 단위로 구분되는 세대가 자원의 분배상 불평등을 초래하는 권력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설령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는 코호트 요인의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세대 간 차이를 초래하는 토대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변화들이 누적되어 향후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을

가능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코호트를 중심으로 노동계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호트 내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코호트의 구분이 여러 세대에 걸친 변화와 그들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제약이 코호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고령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1940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성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코호트는 출생 코호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세대와 코호트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출생 코호트에 한정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제2절에서 후술하겠지만 코호트 구성에서의 논쟁과 세대 개념과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출생 코호트는 동일한 생애주기 상의 변화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하는 세대보다 좁은 범위의 코호트로 구성되어, 코호트별 노동계적의 차이를 검토하는 본 장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사건이 각 코호트에 노동계적 변화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 탐색해 보는 목적에도 적합하기도 하다.

2. 연구목적

구미 복지국가들에서의 고령자 노동 참여의 양상은 산업구조 변화와 공적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맞물려 변화해 왔다. 농업의 감소와 복지국가 황금기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고령자들의 노동 참여를 줄였으며, 이후 연금 축소 개혁과 같은 제도 변화가 고령자들의 고용률 반등을 견인했다(Coile, 2015). 이에 반해, 한국의 고령자들은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기는 물론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이승호, 2019). 한국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서구와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연구는 코호트별 노동계적과 은퇴 경로의 차이를 분석하

여 한국에서의 고령 노동이 보이는 전술한 독특성의 원인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중에서도 본 장은 코호트별 노동궤적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지는 장들의 고령 노동시장 심층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생애주기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 따라 코호트별 노동궤적의 차이를 고찰한다. 생애주기 관점은 개인의 생애주기 궤적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Elder, Johnson, and Crosnoe, 2003). 이 관점은 역사적 사건이 각 코호트에 미친 차별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노년기 성과의 차이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Elder, 1974; Elder, 1993; Riley et al., 1978; Hareven, 1991; Hareven, 1994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노년기의 성과 차이는 생애 초기부터, 심지어는 한 세대 이전부터 지속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누적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생애과정의 맥락에서 삶의 다양한 시점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0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5세 단위의 출생 코호트로 나누어 생애과정에서의 경험과 노동궤적을 추적하고자 한다. 출생 코호트가 곧 생애 경험의 차이로 인해 특정 출생연도 태생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내포하기 때문에, 생애주기 관점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강조하는 역사적 사건의 차별적인 영향을 살피기 위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현저히 변화시킨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외생적으로 발생한 거대한 사건으로, 모든 코호트가 공히 경험하였다. 다만, 외환위기 시점에서 이들의 생애주기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그것의 영향은 다를 수 있었으리라 보고 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장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코호트별 노동궤적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출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코호트에 따른 노동계적 분석을 시도하려면 코호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코호트별 독특성을 드러낼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출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이유를 밝힌다. 이어서 본 장에서 다루는 자료와 분석 방법을 논하는 것으로 이 절의 논의를 전개한다.

1. 출생 코호트의 구성

코호트별 고령 노동의 궤적을 살펴보려면 두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어떻게 코호트를 구분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호트 효과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가 코호트의 개념, 측정상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

먼저, 전자의 문제인 코호트 구성과 관련하여, 고령 노동과 관련해 주목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베이비붐 세대이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1955~63년생으로 정의되어, 최근 새로이 논의되는 세대나 코호트보다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코호트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1974년까지 태어난 집단을 아울러 정의하는 것이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태현, 2010; 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징인 거대한 규모가 1960년대 초뿐 아니라, 1970년대 초에도 발생하였기 때문이다(김용하·임성은, 2011: 38~43). 만약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베이비붐 세대를 더욱 폭넓게 정의하게 되면, 이후 이어지는 386세대 등과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코호트를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 방법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코호트 효과를 별도로 분리해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이슈가 있다. 이는 일찍이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 세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재홍(2001)과 전상진(2004) 등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다만, 논자마다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어, 박재홍(2001)은 ‘사회 역사적 세대’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코호

트 효과와 연령 효과, 기간 효과 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코호트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반해, 전상진(2004)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세대가 등장한다고 전제하는 박재홍(2001)의 코호트 분석이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기간 효과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살필 수 있지만, 이들 간의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여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전상진, 2004: 40).¹⁾

상기한 문제는 사실 코호트가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집합체로서의 ‘세대’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Hareven, 1994; Alwin and McCammon, 2003). 달리 말하면, 세대와 코호트가 등치되는 개념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내 연구들, 특히 실증 연구들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와 코호트가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세대와 코호트를 구분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Alwin & McCammon(2003)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것이 Ryder(1985)와 Kertzer(1983)의 연구이다. Ryder는 세대 개념을 친족 구조에서의 시간 단위에 국한하고, Mannheim이 말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강조하는 시간적 분석단위는 코호트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박시내·심규호(2010)는 Kertzer가 세대 개념의 범주화를 시도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음을 지적했다(박시내·심규호, 2010: 170).

다른 한편, 실증 분석에서도 연령 효과와 코호트, 기간 효과를 구분하는 방법 역시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것은 Yang(2011)의 연령-기간-코호트 모델(Age-period-cohort model)이다. 이는 반복된 횡단 자료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결합한 혼합 모형(mixed model)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수준의 연령 효과와 집단 차원의 더미 변수화된 코호트 및 기간 효과를 각각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하는 모형이다.

1) 그렇다고 해서 그가 코호트 연구가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코호트 분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코호트를 통한 세대 연구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코호트의 내적 발전이나 코호트 간 분화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전상진, 2004: 48).

이 방법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세 효과를 구분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을 적용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이들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Bell and Jones, 2013, 2014). 또한, 연령 효과가 변화할 때, 다른 요인의 영향, 코호트의 영향이 고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재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Wong, Zheng, and Wan, 2017: 260). 게다가, 모형 설정의 문제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코호트와 기간 효과가 계속해서 변화하는지 혹은 특정 시기에 변화하고 이후 영향력이 지속되는지를 어떻게 모형화하느냐에 따라, Yang & Land(2006)의 혼합 모형과는 다른 형태의 혼합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Bell and Jones, 2013, 2014).

이상의 논쟁을 요약할 때, 코호트 규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세대 개념과 혼재되면서 연령, 코호트, 기간이라는 다양한 효과가 ‘코호트’에 내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법론적으로 이를 완벽하게 구분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관점에 입각하여 고령 노동의 양상을 살펴본다는 목적에 따라, 코호트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코호트 구성상의 쟁점에도 불구하고 코호트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생애주기 관점에 따른 분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엄밀하게 코호트 효과를 구분해 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코호트 간 차이와 이들 간의 차이가 누적되어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때, 출생 코호트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출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호트가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코호트가 세대와 등치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Hareven, 1994). 세대는 친족 구조의 시간적 단위로, 사회적 변화의 관찰도구로서는 코호트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Ryder, 1965; 문혜진, 2010에서 재인용). 즉, 설령 코호트 자체가 변화의 원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코호트 간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어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코호트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Ryder, 1965; 문혜진, 2010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1940년생부터 1964년까지 2019년 현재 기준 고령자를 대상으로 5세 단위의 집단으로 출생 코호트를 구성해 총 5개의 코호트 간의 차이들을 분석한다.

한편, 주요한 역사적 경험으로는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에 주되게 관심을 둔다. 무엇보다 이 변화가 상당히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여 모든 코호트가 공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체제의 변화를 초래한 1987년 체제에 대응하여, 1997년 체제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 연공서열제에 기초한 노동시장 체계가 비정규직 확대 및 해외 이전으로 이중화된 기점으로, 노동시장 구조의 현저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각 코호트에 미친 영향이 극명하게 달랐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이철승, 2019: 298~300). 특히, 외환위기가 상기한 출생 코호트들에 각각 다른 생애주기 상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요하게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940년에서 44년생 코호트는 50대 중반에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으나, 1960년에서 1964년생 코호트는 30대 중반에 해당 사건을 경험하였다. 생애주기 상의 특징이 다른 만큼 역사적 사건의 영향도 달리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탐색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 조사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궤적을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상태의 성별, 시기별, 연령별 변화 양상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살펴본다. 이때의 경제활동상태는 생애주기 상의 주요한 변화인 가족 구성 및 구조 변화와 함께 살펴본다. 가족 관련 요인들은 인구센서스 자료 등을 토대로 한다. 아울러, 이상의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코호트 내의 이질성을 초래하는 주요 변인으로 성별을 제기하듯(우해봉, 2011, 2013) 성별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가 현저하게 구별되므로, 이상의 분석은 성별을 나누어 살펴본다.

제3절 코호트별 노동계적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출생 코호트별 노동계적을 기술한다. 우선 코호트별로 노동시장 참여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중심으로 출생 코호트들이 각 연령에서 보인 노동시장 참여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각 코호트의 주된 일자리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생애주기 상의 특징과 어떻게 결부되어 나타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때의 목적은 총량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노동계적의 세부 특징들을 살피는 것이다. 이어서 상이한 생애주기에서 경험한 외환위기가 각 코호트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이들의 고령 노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코호트별 노동계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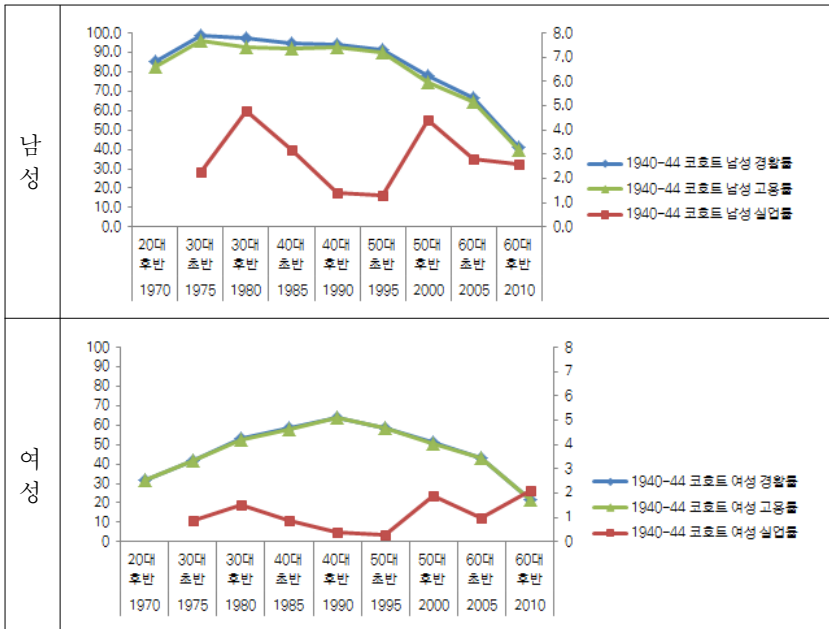
가. 코호트별 노동시장 참여 양상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코호트별로 성,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출생 코호트는 5세 단위 연령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40년생부터 1944년생, 1945년생부터 1949년생, 1950년생부터 1954년생, 1955년생부터 1959년생, 1960년생부터 1964년생 총 5개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생애주기 상의 특징을 고찰하기에 앞서, 이들 각 코호트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핀다.

[그림 2-1]은 1940~44년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대다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에 거의 차이가 없다. 30대에는 90% 이상의 높은 경황률을 보이는데, 이들이 30대 후반이 된 1980년경에는 실업률이 급

(그림 2-1) 1940~4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단위: %)



- 주: 1) 좌측 축은 경찰률과 고용률을, 우측 축은 실업률 값을 위한 축임.
- 2) 1995년까지의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며, 2000년 이후 시기는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2019.9.24. 다운로드).

증하면서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50대 초반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여,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이러한 경향은 50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하여, 60대 부터는 기존보다 노동시장 참여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상당히 그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생 코호트 여성과 비교하면 고령 노동 참여 역시 남성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한편, 1940~44년생 여성 출생 코호트는 같은 출생 코호트의 남성들과 판이하게 다른 노동시장 참여 양상을 보인다. 여성들은 같은 출생 코호트의 남성들이 80~90%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도 노동시장 참여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40%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40

대 후반에 정점에 이른다. 이후 50대 초반부터 차츰 낮아지기 시작하여, 60대 후반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극히 미미하다. 특징적인 점은 전 연령에 걸쳐 해당 출생 코호트 여성의 경황률과 고용률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 코호트의 남성들은 20대부터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원가구로부터 빠르게 독립하였다. 이는 이어지는 <표 2-1>과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인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1960년대 남성은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을 전후하여, 그리고 대다수의 여성은 20대 초반 무렵에 혼인하여 가족을 꾸렸다. 그리고 남성은 결혼으로 가구를 형성한 뒤, 30대부터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생계부양자로서 남성들의 역할이 원가구로부터의 독립과 가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면에,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30대 초반까지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하다. 남성의 생계부양과 여성의 가족 내 재생산 기능 간의 분화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라 하겠다.

<표 2-1> 연도별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남성	여성
1960	25.4	21.6
1966	26.7	22.8
1970	27.1	23.3
1975	27.4	23.6
1980	27.3	24.1
1981	26.4	23.2
1985	27.0	24.1
1986	27.1	24.3
1987	27.3	24.5
1988	27.5	24.6
1989	27.8	24.8
1990	27.8	24.8

주: 1960~1980년은 『한국의 사회지표』를, 1981~2005년은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작성.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한국의 사회지표』(2019.11.1 다운로드).

〈표 2-2〉 출생 코호트별 유배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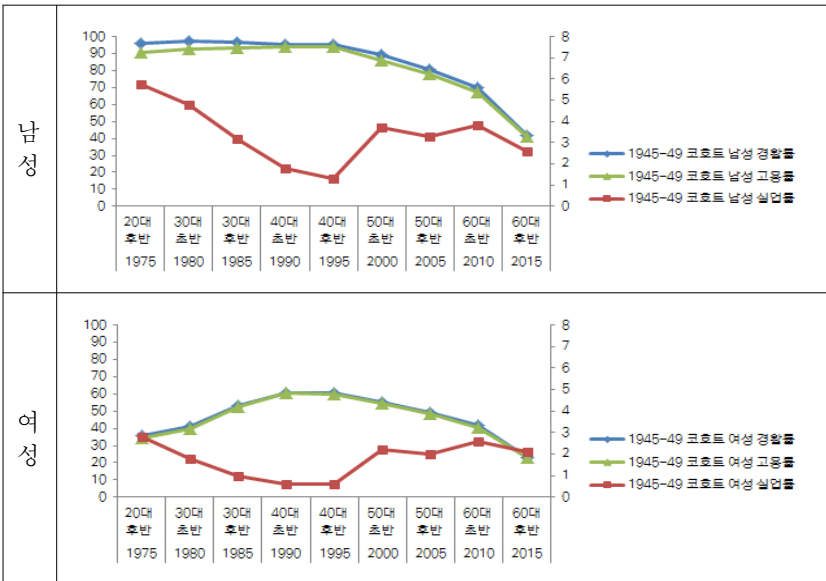
(단위:%)

	남성		여성	
	20대	30대	20대	30대
1940~44년생 코호트	53.4	95.8	80.8	93.5
1945~49년생 코호트	44.5	95.1	72.9	93.6
1950~54년생 코호트	45.5	93.7	70.2	93.0
1955~59년생 코호트	41.7	90.6	67.3	92.3
1960~64년생 코호트	35.6	78.5	62.5	83.3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19.11.1. 다운로드).

〈그림 2-2〉 1945~49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단위:%)



- 주: 1) 좌측 축은 경합률과 고용률을, 우측 축은 실업률 값을 위한 축임.
- 2) 1995년까지의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며, 2000년 이후 시기는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2019.9.24. 다운로드).

이어지는 [그림 2-2]는 1945~49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성,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양상은 앞

선 1940~44년 출생 코호트와 유사한 편이다. 다만, 남성의 경우 이전 코호트보다 20대 후반부터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경활동과 그 수준에 달하는 고용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코호트는 앞선 1940년대 초반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제활동이 가족 형성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코호트는 5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1940~44년 출생 코호트보다 이른 50대 초반에 이전보다 다소 큰 폭으로 경활동과 고용률이 감소한다. 그리고 60대까지 감소가 이어지는데, 이때의 낙폭이 이전 세대보다는 작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이어지는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40년대생 코호트보다 40대 후반 무렵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이들의 비중이 큰 폭으로 작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금전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겠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비교적 이전 세대보다 빠르게 자녀들이 독립하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1940년대 후반 코호트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 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2-3> 출생 코호트별 40대 중반 이후 미혼자녀와의 동거율

(단위:%)

		46~50세	51~55세	56~60세
남성	1940~44년생 코호트	90.2	76.0	58.9
	1945~49년생 코호트	76.2	72.7	57.0
	1950~54년생 코호트	73.0	66.0	52.0
	1955~59년생 코호트	64.4	61.7	50.5
	1960~64년생 코호트	59.7	60.0	
		46~50세	51~55세	56~60세
여성	1940~44년생 코호트	85.0	64.5	41.3
	1945~49년생 코호트	77.4	62.9	41.6
	1950~54년생 코호트	73.3	60.2	40.6
	1955~59년생 코호트	68.6	57.8	40.7
	1960~64년생 코호트	66.5	59.9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19.11.1. 다운로드).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전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1945년부터 1949년 출생 코호트에서도 성별 노동시장 참여의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다만, 여성도 이전 출생 코호트와 대체로 유사한 노동시장 참여 경향을 보인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40대 초반에 고용률이 정점에 이르고 40대 후반까지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후 연령대에서의 노동시장 이탈은 이전 세대와 대체로 유사한 편이고, 60대 후반에 급격하게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든다는 점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 양상의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들의 출산과 관련 있어 보인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70년대 초중반까지도 20대 초반 무렵으로 큰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표 2-4>와 같이, 1940년대 초반 코호트와 비교할 때, 이후 코호트에서는 1명 내지는 2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 및 돌봄이 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 양육기 이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는 자녀 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코호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2-4> 40대 기준 코호트별 여성의 평균 자녀 수

(단위: %)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1940~44년생 코호트	2.0	4.8	15.6	30.8	25.8	21.1
1945~49년생 코호트	2.6	6.3	31.3	36.5	15.7	7.6
1950~54년생 코호트	3.5	9.0	48.1	29.0	7.9	2.5
1955~59년생 코호트	5.0	14.1	61.5	16.0	2.7	0.7
1960~64년생 코호트	5.9	15.8	64.3	12.2	1.6	0.2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19.11.1.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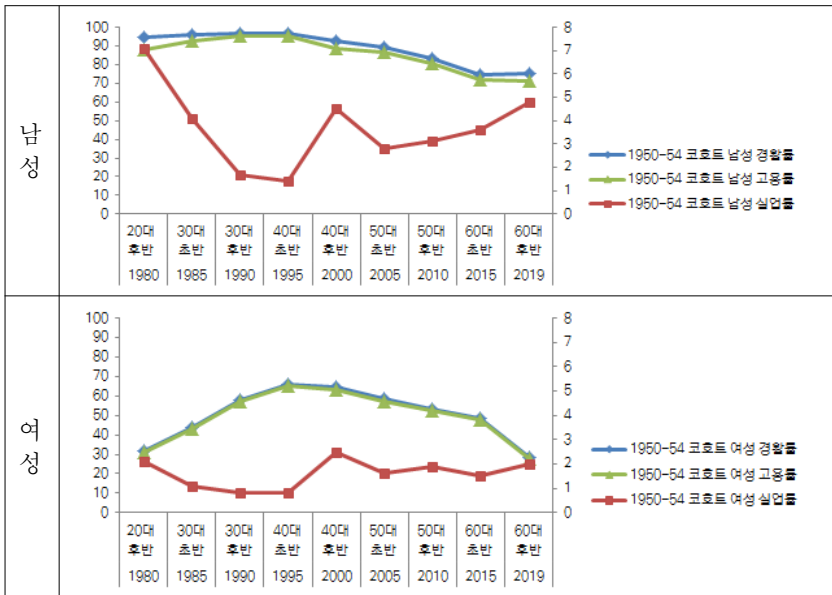
다음은 1950년부터 1954년에 태어난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다. [그림 2-3]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보인다. 우선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후반에 생애주기에서의 다른 시기보다 높은 수준의 실업률에 당

면하였다. 그 영향으로 남성은 20대 후반인 1980년 초 경활률과 고용률의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난다.

다만 고실업의 영향이 여성에게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당시의 노동시장 진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상당수가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대 후반의 이러한 양상은 앞선 1945~49년 출생 코호트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실제로 [그림 2-3]에서 1950년대 초반 코호트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마친 40대 초반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시기,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만큼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가 자녀가 성장한 후에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림 2-3] 1950~5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단위: %)



주: 1) 좌측 축은 경활률과 고용률을, 우측 축은 실업률 값을 위한 축임.

2) 1995년까지의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며, 2000년 이후 시기는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3) 2015년까지의 자료는 연간 통계 자료이고, 2019년 자료는 2019년 6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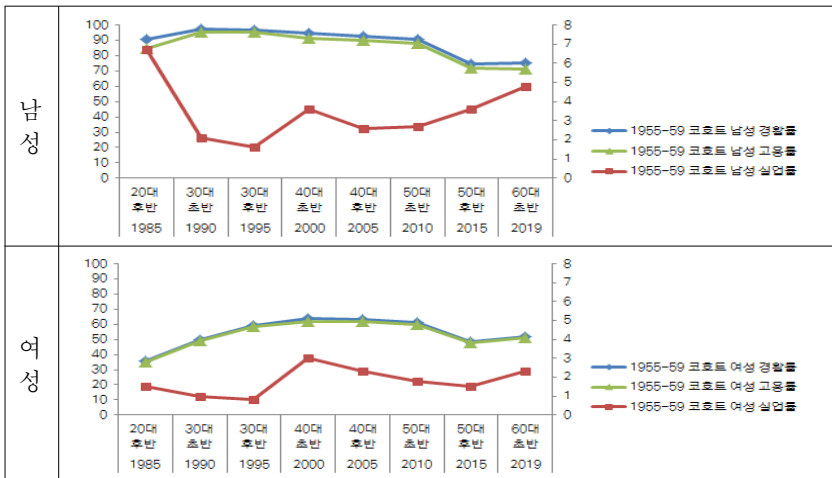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2019.9.24. 다운로드).

다른 한편, 이전의 1940년대생들과 비교할 때 차별적인 특성도 이 코호트에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1950~54년 출생 코호트는 60대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인다. 특히, 남성은 60대 후반에도 고용률이 70%를 상회하여, 60대 초반 무렵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경활률과 고용률 간의 차이가 60대 초반보다 60대 후반에서 다소 크다. 이는 1950~54년 출생 코호트에서 60대 후반에도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이 많으나, 여건상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림 2-4]는 1955~59년 출생 코호트의 성별, 시기별 노동시장 참여 양상을 보여준다. 이 코호트에서는 이전 세대와 두드러진 차이가 몇 가지 확인된다. 첫째, 5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이전 세대와 달리, 남녀 공히 50대 후반까지도 높은 수준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및 50대 초반의 고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50대 초반까지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한 뒤, 50대 후반부터 다소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림 2-4) 1955~59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단위:%)



주: 1) 좌측 축은 경활률과 고용률을, 우측 축은 실업률 값을 위한 축임.

2) 1995년까지의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며, 2000년 이후 시기는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3) 2015년까지의 자료는 연간 통계 자료이고, 2019년 자료는 2019년 6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2019.9.24.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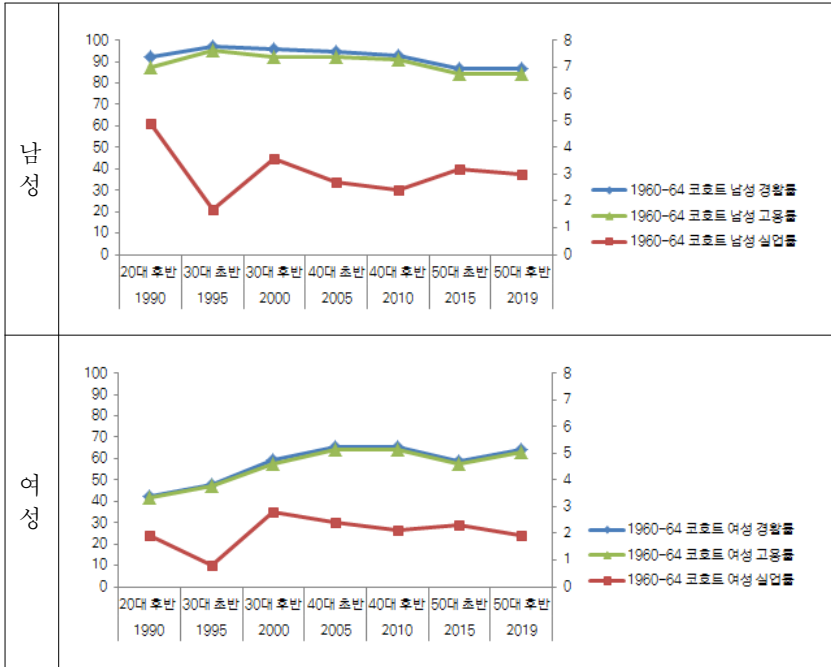
또한, 1950~54년생 출생 코호트 남성에서 나타난 높은 고령 노동 참가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0년대 출생 코호트들은 1950년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여 60대까지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1950년부터 1954년생 코호트 남성은 60대에도 7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률은 보인다. 다만 해당 코호트 여성은 60대부터 노동시장 참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955년에서 1959년 출생 코호트는 남성은 물론 여성 역시 60대에도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심지어 50대 후반보다 60대 초반의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코호트의 생애과정 중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60대 초반 시기에서 가장 작았다.

마지막으로 [그림 2-5]는 1960~6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를 보여준다. 아직까지 해당 연령대는 60대 이상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아 앞선 출생 코호트들과의 전체 생애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을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50대에 다소 고용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50대 후반까지 청·장년기와 큰 차이 없이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전 세대가 50대에 접어들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앞선 <표 2-2>에서 살펴본 것처럼, 30대에 들어서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은 30대에도 이전보다 비교적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성은 대체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진적으로 고용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50대 초반에 다소 고용률이 주춤하지만, 50대 후반에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앞선 <표 2-4>에 제시한 것처럼,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주로 주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2명 이하의 자녀를 갖는 여성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아래의 <표 2-5>와 같이, 가구 단위에서 맞벌이의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이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그림 2-5] 1960~6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단위: %)



- 주: 1) 좌측 축은 경합률과 고용률을, 우측 축은 실업률 값을 위한 축임.
 - 2) 1995년까지의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며, 2000년 이후 시기는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 3) 2015년까지의 자료는 연간 통계 자료이고, 2019년 자료는 2019년 6월 기준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2019.9.24. 다운로드).

<표 2-5> 코호트별 40대 맞벌이 가구 비중(가구 단위)

(단위: %)

	41~45세	46~50세
1940~44년생 코호트	23.3	19.5
1945~49년생 코호트	19.2	27.8
1950~54년생 코호트	28.8	41.4
1955~59년생 코호트	46.2	42.8
1960~64년생 코호트	45.3	44.3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19.11.1. 다운로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출생 코호트와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남성은 가족을 형성하는 20대부터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유급 노동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다가 대체로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족이 축소되는 50대 무렵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한편, 남성과 여성 간에는 고용률 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하여, 남성의 고용률이 현저하게 높다. 특히, 가족의 형성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측면과 맞물려 있다. 다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더불어, 여성은 20대보다는 40대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과 달리 경황률과 고용률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반면에, 출생 코호트에 따라 성, 연령 집단별 노동시장 참여 양상에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1940년대 출생 코호트 남성은 5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여 고용률이 생애 후반기에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50대 후반에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그 추세가 상대적으로 최근 코호트인 1945년에서 1949년 코호트에서 낙폭이 더 작은 편이다. 이에 반해, 1950년대생 코호트는 60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1940년대생 코호트만큼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 코호트에서도 50대 무렵에는 고용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일정 수준 감소한 뒤 60대에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1960년대생 코호트는 50대 무렵에도 젊은 시기와 고용률 차이가 크지 않다. 달리 말해, 50대 후반에도 전 시기와 다름없이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1940년대생 코호트는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가운데, 20대부터 40대까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진다. 이후 다시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져 60대 노년기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고용률을 보인다. 반면에 1950~54년생 코호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50대까지도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이후 코호트인 1955년에서 1959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오히려 60대의 고용률이 50대 후반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이전 코호트보다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1960

~64년생 코호트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연령 증가와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 50대 후반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인다. 아직 이들의 노년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의 고령 노동도 상당히 활발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나. 코호트별 주된 일자리 경험

다음으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출생 코호트별 주된 일자리 경험을 살펴본다. 단, 자료가 조사 시점의 만 55세부터 79세를 대상으로 하여 1939년 5월 15일부터 1964년 5월 14일 출생자만이 조사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 논의하는 1940년대생부터 1964년생까지의 출생자 중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1964년생은 제외하고 출생 코호트별 특성을 파악한다. 이때 이들의 노동궤적 상의 특징이 생애주기 변화와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아울러, 분명히 할 점은, 1960년대생은 아직 은퇴 이전인 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된 일자리는 노동궤적 분석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이것이 핵심 노동 연령대의 소득보장은 물론 노년기의 연금 수급 여부 및 금액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의 정의와 측정 방식을 결정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는 생애주기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비정형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생애를 구분하는 주된 일자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뿐 아니라, 개인의 노동 생애에서 주된 일자리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하며, 여러 개의 주된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의 자료 특성을 감안하여,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최근에 늘어난 비정형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평생 직장(lifetime employment)이 작동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접근이 그리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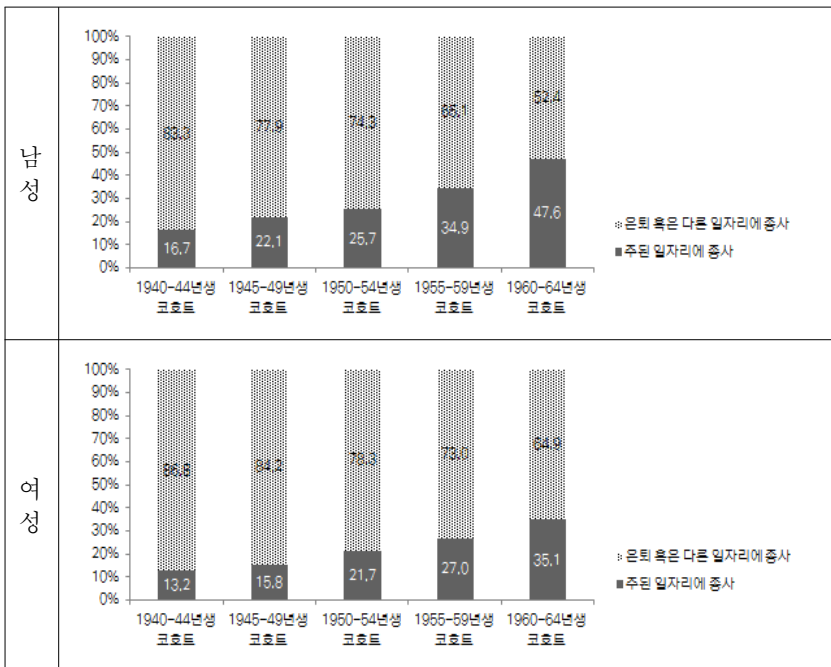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적지 않은 수의 고령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

애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긴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한해서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 다음의 [그림 2-6]이다. 젊은 연령대일수록 성별에 무관하게 공히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2019년 현재 기준 50대 후반인 1960~64년 출생 코호트 중 남성의 과반 가까이, 그리고 여성의 35%는 여전히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주된 일자리에 있는 은퇴 연령은 초기 출생 코호트가 더 늦은 편이다. [그림 2-7], [그림 2-8]에서 보여주듯이, 1940년에서 1944년생 코호트의 주된 일자리에 있는 퇴직 연령은 남성은 60.3세, 여성은 56세로 다른 출생 코호트보다 퇴직 연령이 늦은 편이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0년

[그림 2-6] 주된 일자리 종사 여부

(단위: %)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도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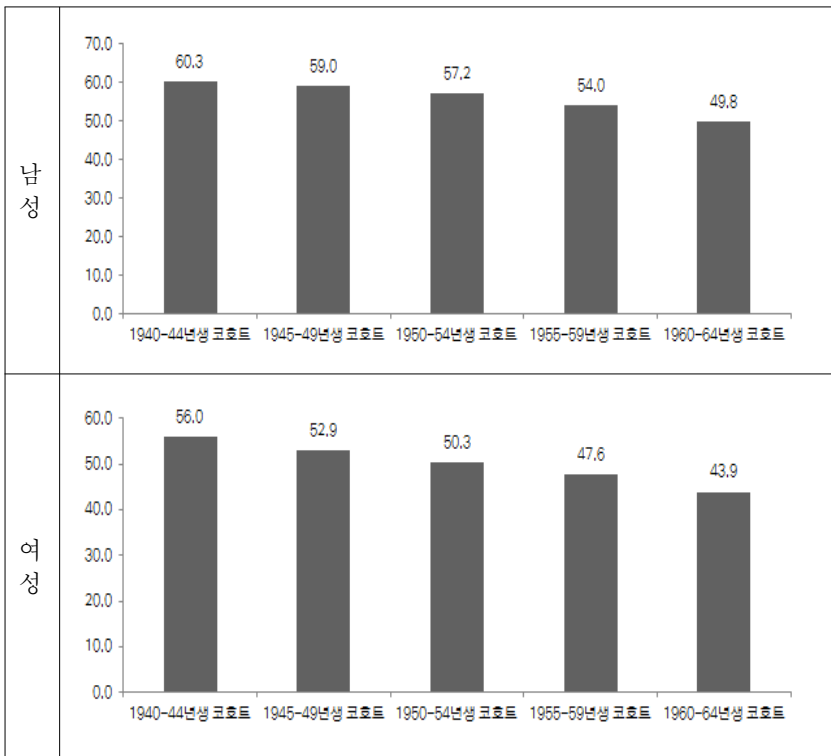
2) 현재 경제활동 중인 고령자에 한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9. 11.2. 다운로드).

가량 주된 일자리에서 근속해 왔다. 1945년에서 1949년생 코호트 남성은 이전 코호트보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59세이고, 여성은 다소 낮은 52.9세이다. 이어지는 1950년에서 1954년생 코호트 남성은 57.2세, 여성은 50.3세이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는 다소 근속연수가 짧아 남성은 약 23년, 여성은 약 14년을 주된 일자리에서 일했다. 이후 코호트는 퇴직 연령이 이전 코호트보다 낮는데, 해당 코호트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3 이상이 여전히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평균 퇴직 연령이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림 2-7)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평균 연령

(단위: 세)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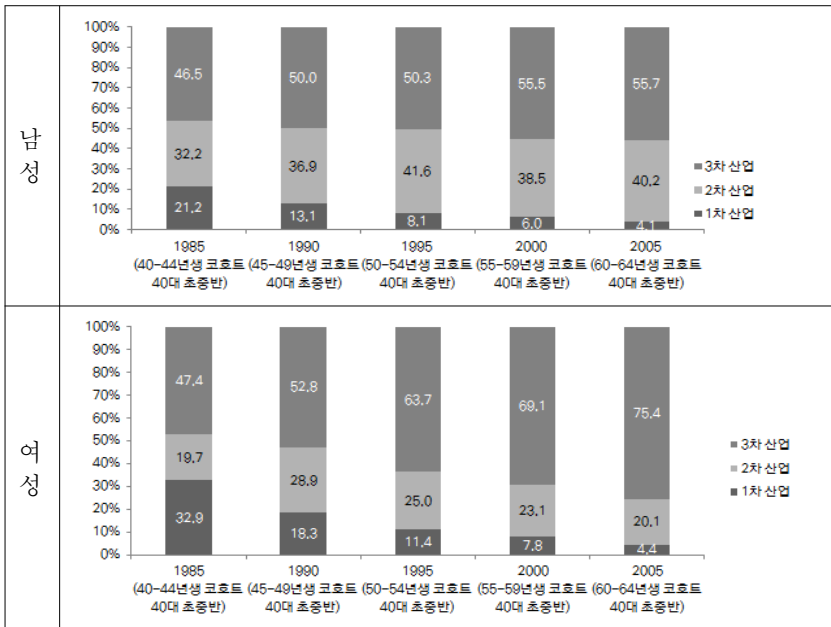
2) 일을 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은퇴한 이들에 한해 분석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9. 11.2. 다운로드).

한편, 각 연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각 코호트가 만 40세에서 45세에 도달한 시점의 종사 산업을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2-8]과 같다. 남녀 공히 1차 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다. 특히 1950년대 출생 코호트 이후부터는 남성의 90% 이상이 2, 3차 산업에 종사한다. 아울러,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8] 출생 코호트별 40대 초중반 종사 산업

(단위: %)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도출한 것임.

- 2) 시기별 표준산업분류체계의 변화로, 포함되는 세부 사업에는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전체 분류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985년과 1990년대 자료는 1차 산업에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이 포함되고, 2차 산업에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및 건설업, 그 외 분류불능을 제외한 산업이 3차 산업에 포함됨. 1995년 자료에는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이 1차 산업에 포함되었고, 광업과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이 2차 산업에, 그 외 산업이 3차 산업에 포함됨. 2000년과 2005년 자료에는 농업, 임업, 어업을 1차 산업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등 산업과 건설업을 2차 산업에, 그 외 산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2019.12.24. 다운로드).

〈표 2-6〉 출생 코호트별 교육수준

(단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 졸
남 성	1940~44년생 코호트	34.1	19.5	32.0	0.4	11.0	3.0
	1945~49년생 코호트	27.1	24.0	30.6	1.3	13.8	3.2
	1950~54년생 코호트	21.1	22.8	34.5	2.8	14.6	4.1
	1955~59년생 코호트	11.6	19.0	42.0	4.7	17.4	5.2
	1960~64년생 코호트	5.9	11.5	45.9	7.0	24.6	5.0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 졸
여 성	1940~44년생 코호트	70.7	13.8	12.5	0.6	2.5	0.0
	1945~49년생 코호트	57.0	20.1	16.9	1.1	4.5	0.5
	1950~54년생 코호트	38.8	26.3	27.5	1.3	5.2	0.9
	1955~59년생 코호트	23.1	27.3	35.8	3.7	8.6	1.4
	1960~64년생 코호트	10.0	20.2	49.4	4.9	13.4	2.1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도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9. 11.2. 다운로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40년에서 1944년생 코호트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 전후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해 평균적으로 25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속하였다. 그리고 50대 후반부터 주된 일자리에서는 대부분 은퇴하기 시작하며, 노동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장 생활 초기 단계인 20대 중반 무렵 대부분이 혼인하여 원가구에서 분리된다. 같은 코호트의 여성은 이보다 이른 20대 초반 무렵 혼인한 뒤, 30대까지는 가사를 전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해당 코호트의 여성들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곤 하며(40대 기준), 이들이 50대가 된 뒤에도 남녀 공히 미혼의 자녀들과 동

거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상 해당 코호트의 남성이 가구의 생계부양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1945~49년까지의 194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와 1950~54년까지의 195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 역시 1940년에서 1944년생 코호트와 노동시장 참여 양상과 생애주기 상의 가족 구성 및 구조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들 코호트도 산업화 시기에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장기 근속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전보다 해당 코호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코호트 남성들은 앞선 코호트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빠른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50대 초반부터 고용률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한편, 195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 남성은 60대 후반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 세대는 연금 수령자 수가 많지 않으나,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체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195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경향이 있다. <표 2-6>과 같이, 1955~59년생까지 출생 남성은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여성도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50% 수준에 달했다. 초대졸 이상 학력자도 남성은 27.3%, 여성도 10%를 넘어선 13.7%에 이르렀다. 이와 맞물려 30대까지 원가구인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이가 이전 세대보다 높다. 한편, 이 코호트의 남성은 2, 3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50대 초반까지 안정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20여 년간 종사하다가 퇴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60대까지도 다른 노동시장에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특징적인 점은 여성들도 60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유급 노동 활동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만 상대적으로 앞선 세대보다 노동시장에 뒤늦게 참여하기 시작해 근속연수도 평균 20년 수준으로 다소 짧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도 일부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생활비 충당을 위해 60대 초반에도 활발하게 노동시

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960년에서 1964년생 코호트는 이전 세대보다 두드러지게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와 맞물려 30대 초반까지도 혼인하지 않은 이들의 비중이 이전 코호트보다 높아졌다. 이는 남성의 경우 1950년대 후반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앞서 이들의 노동 시장 진입 초기 시점인 20대 후반에 고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전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아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시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집단은 아직 주된 일자리에서 여전히 근무하는 이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적어도 남성은 50대 후반까지 보이는 높은 고용률의 상당 부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여성은 이전 코호트보다 높아진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데 반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이는 여성들의 은퇴 이후 경로가 더욱 다양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다만, 이들 코호트의 노년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어서 선불리 논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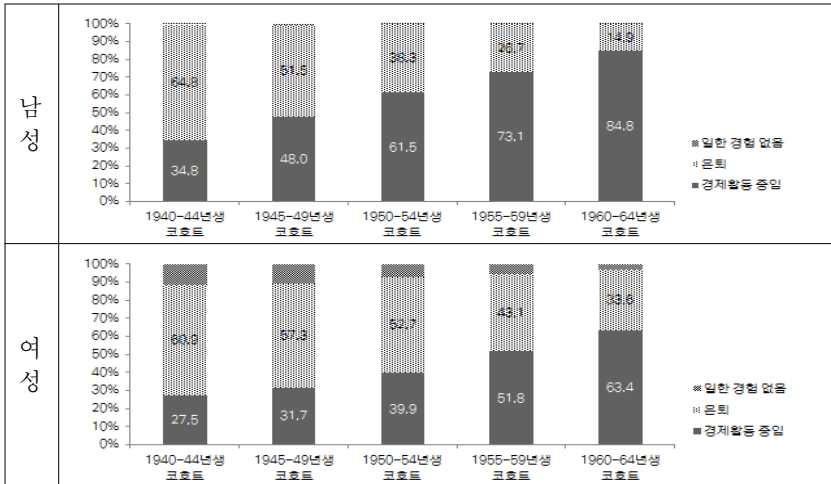
다. 코호트별 노동계적 차이와 고령노동의 양상

그렇다면, 이상의 근로생애 경험의 차이는 고령노동과 어떤 관련성을 맺을까?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하에서는 60대 이후의 경제활동과 구직 의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각 연도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림 2-9]와 같이, 70대에 접어든 40년대생 코호트들의 다수가 은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수의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생애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각 코호트의 연령에 따라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림 2-9) 고령층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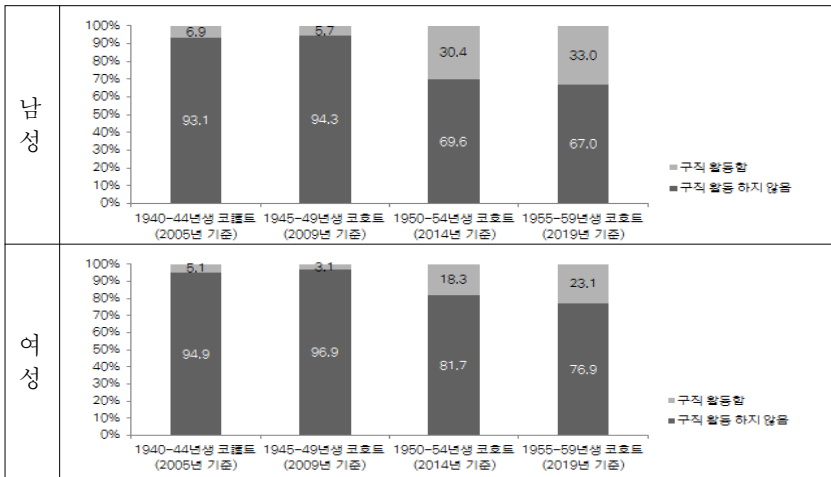
(단위: %)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도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9.11.2. 다운로드).

(그림 2-10) 60대 초반경 코호트별 지난 1년간 구직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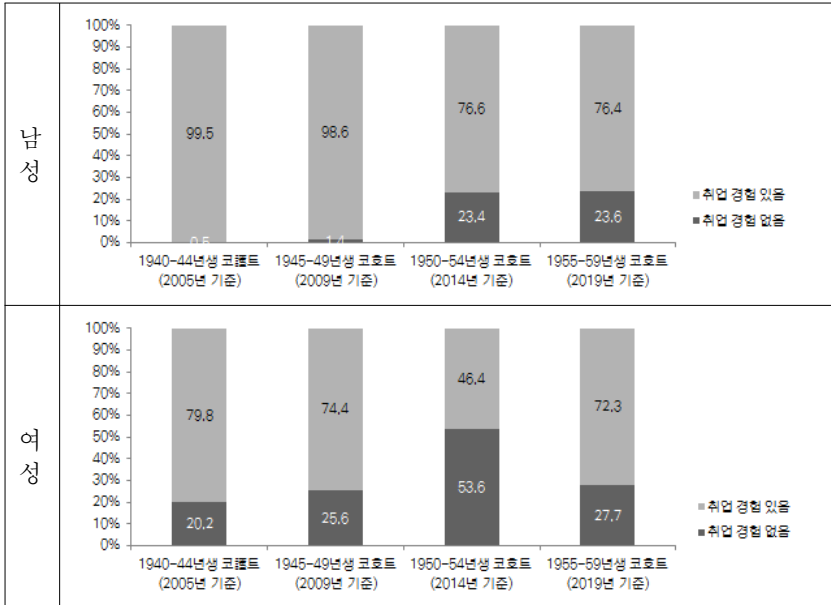
(단위: %)



주: 1) 각 코호트가 만 60세부터 64세에 도래한 때를 비교함. 단, 고령층 부가조사가 2005년부터 시작하여, 40년대 초반 코호트는 만 61세부터 65세까지 결과임.
 2)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도출한 것임.
 3) 생애 근속연수가 가장 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자에 한한 것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05년, 2009년, 2014년,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9.11.2. 다운로드).

[그림 2-11] 60대 초반경 cohorts별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여부

(단위: %)



- 주: 1) 각 cohorts가 만 60세부터 64세에 도래한 때를 비교함. 단, 고령층 부가조사가 2005년부터 시작하여, 40년대 초반 cohorts는 만 61세부터 65세까지 결과임.
 2)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도출한 것임.
 3) 생애 근속연수가 가장 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자에 한한 것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05년, 2009년, 2014년,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9.11.2. 다운로드).

흥미로운 점은 1940년대생 cohorts들이 70대에는 다수 은퇴하였으나, 60대에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앞서 평균적으로 남성이 60세 무렵에 생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 2-10]과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그림은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에 한해, 각 cohorts가 60대에 도달한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생 cohorts들 역시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 이후 상당히 활발하게 구직활동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1940년대생에 비견되지는 못한다. 1940년대생들보다 주된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기간이 긴

반면, 상대적으로 이후 코호트와 비교해 볼 때,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즉, 노동시장 이탈 이후에도 노동시장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 기제가 불충분하였던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연금 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특히 1940년대생은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들 중 다수가 70대에도 여전히 약 30%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2. 역사적 사건의 코호트별 차이 :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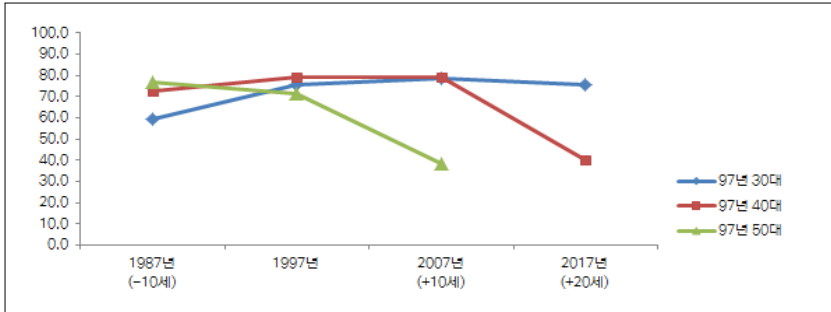
이어서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가 각 코호트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탐색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이해는 사회, 역사적 맥락이 각 코호트의 생애과정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노년기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외환위기라는 주요한 사건이 각 코호트의 생애주기와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코호트별 노동궤적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장의 논의는 인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외환위기가 각 코호트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보는 데 그친다는 점을 밝힌다.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이다. 다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외환위기의 여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해, 위기 국면에서의 연령에 따라 그 영향이 달리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2-12]를 통해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2-12]에 따르면 1997년 시점에 50대였던 이들은 외환위기 당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이 해당 시점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기에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인구 집단의 고령

(그림 2-12) 외환위기 당시 30~50대의 고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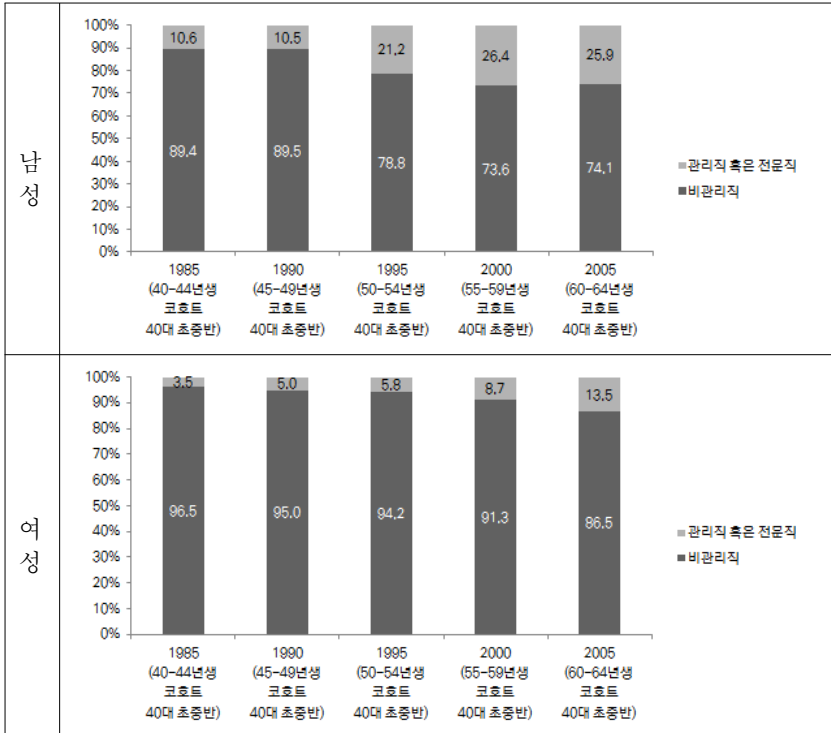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2019. 9. 24. 다운로드).

화 추세를 감안하여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철승 (2019)의 연구에서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하던 소위 산업화 세대가 외환위기 국면에서 빠르게 퇴출당하였음을 지적한 것과 상통하는 지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1940년부터 44년대 출생 코호트는 50대 후반 무렵부터, 1945년부터 49년대 출생 코호트가 50대 초반부터 서서히 노동시장에서 급속도로 이탈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1940년대 출생 코호트들은 1970~80년대 고성장을 일군 산업화 시대의 핵심 노동계층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고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다만 외환위기 시점에는 이들은 이미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만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장기간 근속하면서 자녀 부양을 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노동시장 이탈로 노후 소득 보장은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과 판이하게 달라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어느 정도 자녀 부양 부담을 덜게 된 가족이 축소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다는 점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다소 덜 수 있는 지점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아직까지 공적 사회보험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퇴출은 노후 생활 불안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앞서 60대에도 높은 수준의 구직 의사를 보인다는 점과 70대까지 약 1/3에 달하는 해당 코호트의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종사하

[그림 2-13] 출생 코호트별 40대 초중반 종사 직업

(단위: %)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도출한 것임.

2) 시기별로 표준직업분류 체계가 달라, 포함되는 직업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2019.12.24. 다운로드).

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어쩌면 이는 높은 수준의 한국 노인 빈곤을 설명하는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환위기 당시 50대와 달리, 40대는 외환위기 국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용률을 유지했다. 또한, 이후 시기에도 크게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인다. 실제로 [그림 2-3]과 [그림 2-4]에서 외환위기 전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1950년대생 코호트도 다소 고용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데도 이들의 고용률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위에 제시한 [그림 2-13]과 같이 40대 무렵에 이들은 조직 내에서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이전 세대보

다 현저히 높아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전 코호트와 달리 서서히 노년기로 갈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고 60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코호트는 여성들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60대 이후에도 노동시장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조직의 중간층에 주로 분포하던 이들은 구조조정的主要 표적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을 줄이면서 향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폭 줄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실제로 [그림 2-11]과 [그림 2-12] 등에서 나타나듯, 60대인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수가 여전히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과 20년가량의 평균 근속연수, 50대 중후반 시점에서의 퇴직 등의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이다. 다른 한편,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높아진 교육 수준과 자녀 세대의 늦은 월가구로부터의 독립, 미혼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노년기까지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당시 30대였던 1960년대생 코호트는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입직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국면에서의 고실업 상황으로 고용률이 다소 주춤하였다. 하지만 그 영향이 그리 오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동균(2013)이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고성장의 영향으로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고 지적한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족 형성과 가족 확대기에 우호적인 고용 여건 및 성별 분업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50대 후반까지도 거의 별 차이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수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조직의 상층부에 있던 이전 코호트들이 다수 이탈하면서 이들은 호봉제 체제하에서 안정적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철승(2019) 등의 연구에서 이들이 향유한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수준의 소득을 꾸준히 누렸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편, 고령 노동이 여의치 않은 이들 부모 세대와 더불어, 입직이 늦어지는 자

녀 세대에 대한 이중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측면 역시 간과하기는 어렵다 (김수정, 2018). 어쩌면 이는 50대에 낮아졌던 해당 코호트 여성들이 60대 들어 더욱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배경일지도 모른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1940년생부터 1964년생까지의 고령자를 5세 단위의 출생 코호트로 구분하여, 이들의 노동궤적의 차이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남성들은 가족을 형성하는 20대 후반 무렵부터 30대 초반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50대, 자녀 세대의 독립으로 가족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유급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가족의 생계 부양책임을 도맡아 왔다. 반면에, 여성은 원가족으로 분리되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은 대체로 모든 코호트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인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다만, 40대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후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50대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20대에서 30대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기도 하다. 성별 분업 구조하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출산과 자녀 돌봄이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간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1950년대생 코호트까지에 한정할 때, 평균적으로 남성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사가 다소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50대부터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에도 고령자들은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60대까지는 다수의 고령자가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가시적으로 드러났

다. 이는 남녀 공히 혼인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균적인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인다. 30% 수준에 그치던 40년대 초반 코호트 여성의 고용률이 1960년대생 코호트에 이르러서는 40%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게 된 40대 후반 무렵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20~30대에서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다른 한편, 외환위기의 경험은 각 코호트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조직에서 요직에 포진하고 있던 1940년대생들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견고한 성별 분업 체계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성 가장의 급작스러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로, 노후 불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핵심 노동 계층을 구성하던 시기에 공적연금이 도입되긴 하였지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적지 않은 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1940년대생과 비교할 때, 1950년대생들은 총량적인 수준에서는 비교적 충격이 작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당시 가족 확대기를 거치고 있어 자녀 양육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상황 악화를 견디는 것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빨라지면서 노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남성들의 고용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인해, 가구 단위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 면도 있어 보인다. 남녀 간 초혼 연령에 약 3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 코호트들과 달리 1950년대생 후반 및 1960년대생 코호트에서 여성들이 40대부터 50대까지 꾸준히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외환위기 당시 30대였던 1960년대생 코호트들에게 외환위기는, 적어도 해당 코호트의 남성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는 기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물론 외환위기 상황에서 고용률이 주춤

하긴 했지만, 그 여파가 그리 길지 않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고용률을 회복한 것이다. 또한, 점차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앞당겨지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50대 후반에 도달한 2019년 현재에도 다수가 기존의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제 3 장

근로생애에 따른 은퇴과정의 차이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본 장에서는 1940~54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생애과정의 노동궤적을 분석하여,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를 확인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다. 그리고 2017년,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은 27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도달 후 9년이 지난 후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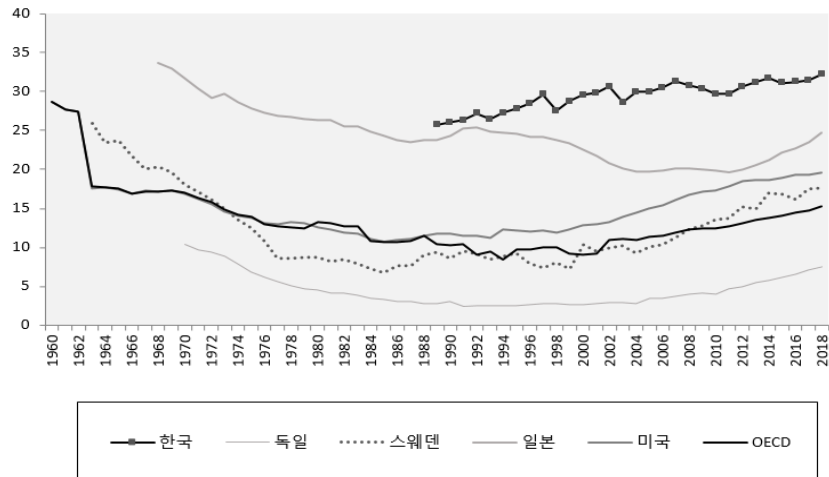
복지국가의 성패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달려 있다. 중고령기 노동궤적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총체적인 은퇴 과정을 반영한다. 고령자를 위한 노후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경험한 중고령기 근로궤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고령기 근로궤적의 변화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한 국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은퇴 과정을 경

힘한다. 은퇴과정 변화는 은퇴의 시기, 노년기 경제활동참여율 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서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은퇴와 관련해 알려진 사실은 최근 퇴직시점이 빨라지고, 공적연금이 갖춰진 국가들은 공식은퇴 시점보다 실질은퇴 시점이 빠른 조기은퇴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Coile, Milligan, and Wise, 2018; Elder and Pavalko, 1993; Hernæs, Markussen, Piggott, and Røed, 2016; OECD, 2006).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퇴직시점이 빨라진다는 점은 유사하다. 한국인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10년 53세에서 2018년 49세로 당겨졌다. 그러나 공식은퇴 시점은 실질은퇴 시점보다 빠르다. 국민연금은 60~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반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그림 3-1 참조).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2%로

(그림 3-1)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1960~2018년)



자료: OECD(2019),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indicator). doi: 10.1787/8a801325-en(Accessed on 30 June 2019).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퇴직하며,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자의 다수는 50~60대에 소득절벽을 경험한다. 요컨대, 한국 고령층의 은퇴과정은 은퇴시점에 있어서는 연금제도가 성숙한 국가들과 유사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 숨어 있다.

은퇴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서구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만으로 우리나라 중고령기 근로의 변화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서구 국가는 산업화와 더불어 정년제도가 완성되었으며, 특정 기간 일을 한 뒤 고령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는 것이 전형적인 근로생애로 자리 잡았다. 탈산업화와 더불어 근로생애가 다변화되고, 이는 은퇴과정 분화로 이어졌다(Bengtson, Elder, and Putney, 2005). 실제 서구 국가의 은퇴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은퇴과정의 복잡성 증대-를 확인하였다. 은퇴시기가 당겨지면서 최근 코호트에서 단선적 은퇴(풀타임 노동-노동시장 퇴장)가 감소하였고, 은퇴 후 다시 일하는 부분은퇴, 점진적 은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Brown and Warner, 2008; Elder and Pavalko, 1993; Han and Moen, 1999; Hayward, Friedman, and Chen, 1998; Moen, 1996; Quinn, 1996; Singh and Verma, 2003). 또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가교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지속하려는 변화도 포착되었다(Dingemans, Henkens, and Solinge, 2015). 순차적이고 정형화된 은퇴가 보편화되는 과정을 경험한 서구와 달리, 한국은 근로생애의 표준화와 탈표준화를 동시에 경험했으며, 정형화된 은퇴를 경험하는 집단과 비정형화된 분절적 은퇴를 경험하는 집단이 동시대에 공존한다. 산업화에 이은 급격한 탈산업화, 정년제도²⁾·공적연금의 미성숙, 중장년기 노동시장 불안정이 중장년 근로생애와 노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이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중고령기 근로궤적이 복잡하게 분화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은퇴는 근로생애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즉, 10대부

2) 한국의 정년제도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더불어 형성되었다. 이 시기 55세 정년 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로 정하였으나 실제 기업의 평균 정년은 55~58세이다(이의규 외, 2010).

터 40대까지 형성한 노동시장 경험이 50대부터 60대 중후반의 은퇴과정으로 이어져 근로생애를 형성하며, 앞 시기의 궤적이 이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의 근로생애는 태어난 시점-역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의 생애과정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과정 관점을 고려할 때, 1940년대부터 1950년대생은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을 배경으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1940년부터 1944년생, 1945년부터 1949년생, 1950년부터 1954년생은 태어난 시점, 성장한 시기의 경제적 상황, 경력형성기의 노동시장 상황과 경제위기 경험, 은퇴과정에 있어서 공적연금 제도의 도입여부와 성숙도 등이 모두 다르다. 즉, 이들이 경험한 근로생애의 차이는 은퇴과정의 질적 차이로 확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코호트의 중고령기 근로궤적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하여 노년기 노후불안정에 노출된 취약집단이 누구이고, 그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에 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연금제도가 성숙한 서구 국가의 은퇴 과정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기존 실증연구들은 은퇴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한국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하는 원인-주로 공적연금의 부재-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다(방하남 외, 2009; 장지연 외, 2009; 황수경, 2012). 은퇴과정을 분석한 일부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은퇴과정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에 따른 은퇴과정의 변화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박경하, 2011; 최옥금, 2011; 홍백의·김혜원,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분화와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전략-개인중심 종단자료 구성, 코호트 비교-을 채택하였다. 먼저, 1940~54년생을 대상으로 15세부터 68세까지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근로생애(15세부터 50세)와 은퇴과정(51세부터 68세)으로 구분하여 각각 유형화하였다. 사회경제적 맥락,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 세 출생코호트(1940~44년생, 1945~49년생, 1950~54년생)

의 근로생애 유형과 은퇴과정 유형을 비교하고,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은퇴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년기 공적 사회정책의 역할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0~54년생이 15~50세에 경험한 근로생애와 이들이 51세부터 60대에 경험한 은퇴과정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둘째, 이들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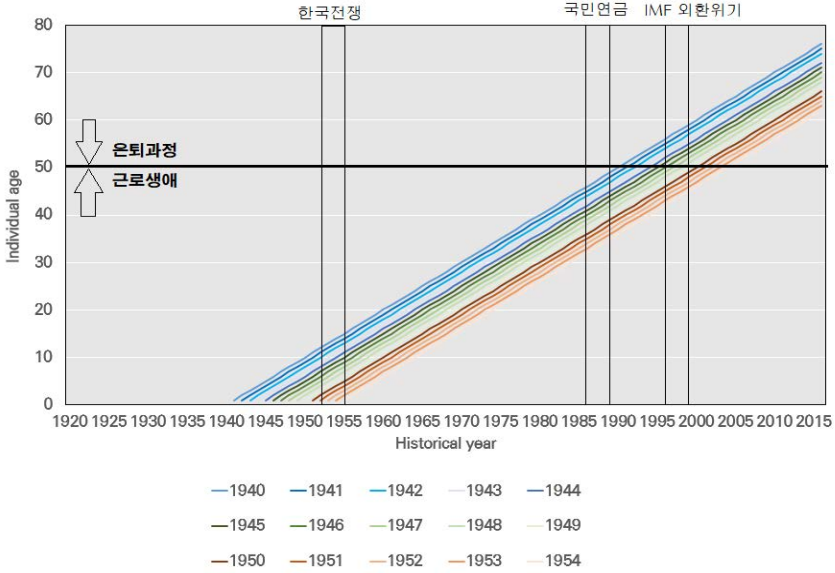
제2절 은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1940~54년생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근로케적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개인의 근로생애와 은퇴는 개인이 위치한 역사적 시간과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Elder, 1985; Van Winkle and Fasang, 2016). 또한 각 개인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은퇴를 결정하는 행위주체로 기능한다. 즉, 역사적 시간과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가진 조건을 통해 은퇴과정을 형성하게 된다(Bengtson, Elder, and Putney, 2005; Elder, Johnson, and Crosnoe, 2003; Elder and Pavalko, 1993; Settersten and Gannon, 2009).

여기서는 1940~1954년에 태어난 출생코호트의 역사적 위치와 사회경제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그림 3-2]와 <표 3-1>은 연구의 분석대상을 세 출생코호트로 구분하여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1940~44년에 태어난 40코호트는 해방 전에 태어나 6.25를 경험하고, 매우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다. 이후 20대와 30대에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고 중장년기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늦게나마 안정적인 근로생애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 단행된 정리해고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였으며,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되기 이전에 중고령기에 진입하여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은퇴를 경험한 세

(그림 3-2) 1940~54년생이 경험한 역사적 시간의 맥락(1940~2016년)



자료: Van Winkle and Fasang(2016)의 [그림 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3-1>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출생코호트 비교)

	주요 사건	연령		
		40코호트 (1940~44)	45코호트 (1945~49)	50코호트 (1950~54)
1945	2차 세계대전 종전(해방)	1~5	0	0
1950~53	6.25 전쟁	6~13	1~8	0~3
1961~79	급격한 성장 시기	17~39	12~34	7~29
1988	국민연금제도 도입	44~48	39~43	34~38
1997	1997 외환위기	53~57	48~52	43~47
1999	국민연금제도 의무가입 확대	55~59	50~54	45~49
2003~2005	신용카드 대란	59~65	54~60	49~55

자료: Elder and Pavalko(1993)의 <표 2>를 참고함.

대이다. 1945~49년생(45코호트)은 6.25 전쟁 직전에 태어나 전후 불안정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40코호트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교육 혜택을 받은 후 20대, 30대의 근로생애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대량해고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40코호트가 해고된 자리를 대체하여 안정적 경력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1950~54년생인 50코호트는 6.25 전쟁 전후에 태어나 공교육 안정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가장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해야 할 40대에 상시적 고용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 세대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공적연금제도가 확대되고 정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혜택을 받는 집단은 여전히 소수에 집중되었다.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면, 40코호트, 45코호트는 50코호트보다 분화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코호트는 50대에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50코호트는 40코호트, 45코호트 집단 보다는 정형화된 은퇴과정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률, 적용 범위가 여전히 잔여적이었고, 50대 시기에 신용카드 대란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시기에 퇴직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50코호트의 은퇴과정 역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제3절 분석방법

1. 분석자료

가. 분석자료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고령화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는 2006년 기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45세 이상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화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45세 이상 가구에 속한 45세 이상 고령자를 모두 포함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조사들은 대부분 50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화패널조사는 45세부터 49세에 발생하는 경력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조사대상 연령을 45세로 낮추었다. 고령화패널조사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해고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당시 40대 중 후반 근로자들이 경험한 경력변화가 이후 근로생애에 미친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

나. 분석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의 2006년 직업력 자료와 2006~2016년까지 총 6차례 실시된 기본조사의 경제활동상태 조사 자료를 개인단위 종단자료로 재구조화하였다. 2006년 직업력 자료에는 1940년생이 64세가 된 시점까지의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담고 있다. 즉, 1941년생부터 1954년생의 60대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확인하려면 2006년 이후 기본조사의 경제활동상태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직업력 조사는 1년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기본조사는 2년 주기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1940~54년생의 60대 경제활동상태 변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직업력 자료를 기본조사와 동일한 2년 주기 자료로 전환하여, 개인별로 15세부터 68세(1954년생은 62세)까지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담은 종단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력 자료가 60% 이상 결측된 사례(478명)를 제외한 3,7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가.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측정

본 연구는 15세부터 68세까지 기록된 직업력 자료의 연간 경제활동상태와 기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경제활동상태의 종단적 변화를 유형화했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 여부로 측정하는데,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가족종사자인 경우를 취업으로, 실업, 가사돌봄, 교육 등을 비취업으로 측정하였다. 근로생애는 15세부터 50세까지로, 은퇴과정은 51세부터 68세까지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취업 여부)를 분석하였다.³⁾

은퇴과정을 5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 변화로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2009년 기준 퇴직연령⁴⁾은 54세이며, 이는 점차 짧아져서 2019년에는 49.4세가 되었다(통계청, 2010, 2019). 또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 1962년생부터 1956년생은 61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은퇴의 총체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동경력의 피크라고 할 수 있는 50세까지를 근로생애로,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51세부터 60대 이후(코호트에 따라 62세부터 68세)까지를 은퇴과정으로 설정하였다.

나. 상태 변화의 유형화

상태 변화를 유형화하는 방법은 배열분석, 잠재분석, 종단적잠재분석방법 등이 있다(Warren et al., 2015). 본 연구는 종단적 잠재분석방법인 GBTA(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를 활용해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유형화했다. GBTA는 연령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유형화하는 준모수적 분석방법이다. 각 시점의 경제활동상태를 취업 여부(미취업 0, 취업 1)인 이분변수로 측정하였으므로 로짓 함수를 적용해 변화 궤적의 확률함수를 구성했다(Nagin, 2005). 유형화를 할 때 제기되는 이슈는 유형의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은퇴 과정 유형의 수, 샘플을 가장 잘 반영하는 효율적 확률 함수를 반영하여 유형의 수를 결정했다.

3) 은퇴 과정은 일반적으로 “완전취업과 완전취업 사이의 일련의 이행과정”으로 정의되는데(황수경, 2012: 2), 본 연구에서 은퇴 과정은 중고령기 노동계적, 즉,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exit)이 관측되는 연속적이고, 총체적인(holistic)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4) 55~64세 중고령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생애 가장 오래 한 일을 그만둔 연령의 평균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코호트별 생애 가장 오래 한 일(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평균 퇴직연령은 1940~44년생 60.3세, 1945~49년생 59.0세, 1950~54년생 57.2세였으며, 여성은 각각 56.0세, 52.9세, 50.3세였다(제2장 그림 2-7).

3. 분석전략

본 연구는 첫째, 15~50세, 51~68세 기간의 근로궤적을 각각 분석한 후,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생애과정 관점을 기반으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코호트 비교를 적용해 은퇴과정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코호트 비교 방법은 각 코호트별로 샘플을 따로 구성해 각각의 근로궤적 유형을 도출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의 샘플에서 유형을 도출하고 코호트별로 해당 유형의 분포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으로 코호트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비교하였다.

제4절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유형화

1. 분석대상의 특성

분석대상의 특성은 <표 3-2>와 같다. 1940~44년생(이후 40코호트)은 1,290명, 1945~49년생(이후 45코호트)은 1,239명, 1950~54년생(이후 50코호트)은 1,261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15세~60대까지의 취업여부 상태 변화 배열이다.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15세~50대까지의 취업, 미취업, 결측 기간정보를 수집하였으며, 6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 정보는 본조사의 현재 상태 변수를 이용해 수집하였다. 고령화패널조사의 본조사는 2년 주기로 조사하므로,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연도, 짝수연도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를 연결하였다. 직업력 자료와 본조사의 경제활동상태 배열을 연결하기 위해 홀수년생, 짝수년생으로 나누어 2년 주기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배열자료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15~50세까지 총 18개의 상태배열, 51세부터 최장 68세까지 최대 9개의 상태배열로 구성된 15세~60대까지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배열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3-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40코호트 (1940~44)	45코호트 (1945~49)	50코호트 (1950~54)
사례 수	1,290	1,239	1,261
근로생애 상태 분포(평균, 15~50세 18개 상태배열)			
미취업	6.49	6.13	6.71
취업	11.51	11.87	11.29
Attrition	0.00	0.00	0.00
은퇴과정 상태 분포(평균, 51~68세, 최대 9개 상태배열)			
미취업	4.19	3.96	2.80
취업	4.69	4.59	3.77
Attrition	0.12	0.45	2.43
근로 특성			
45세 시점 고용률	74.26	76.03	72.40
15~52세 경험한 일자리 수(평균, sd)	3.69(2.32)	3.79(2.19)	3.63(2.05)
15~52세 경력일자리 있음	62.40	63.92	59.79
인구사회학적 특성(2006년 기준)			
성별(여성)	56.43	51.90	53.93
기혼	81.09	87.09	89.77
가구원 수(mean, sd)	2.64(1.27)	2.82(1.20)	3.19(1.23)
자녀 수(mean, sd)	3.19(1.28)	2.74(1.10)	2.31(0.93)
대도시 거주	43.18	43.99	47.66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이상(%)	66.98	71.51	81.36
공적연금 가입(%)	19.32	45.92	53.97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빈곤율(%)	61.16	49.41	38.70
교육수준			
초졸 이하	58.84	42.21	29.52
중학교 졸업	16.05	23	23.97
고등학교 졸업	18.06	25.67	35.79
전문대 졸업 이상	7.05	9.12	10.7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5~50세까지 관측된 상태배열의 미취업, 취업상태 개수를 분석한 결과, 50코호트는 40코호트, 45코호트보다 미취업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 51~68세까지 상태배열 개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50코호트는 40코호트, 45코호트보다 취업기간이 짧았는데, 50코호트의 경우에는 출생시점이 늦어서 우측절단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5세 시점의 고용률, 15~52세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1년 단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추정)는 세 코호트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지속한 주된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은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50코호트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세 코호트의 일자리 정보 관측 기간을 15~52세로 일치시킨 후 계산한 것으로, 우측절단으로 인한 영향은 아니다. 즉, 최근 코호트일수록 주된 일자리를 경험한 고령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0코호트가 40코호트, 45코호트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낮았다. 50코호트는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기혼자 비율이 높고, 평균 가구원 수도 더 많았다. 하지만 자녀의 수는 40코호트가 가장 많았다.

세 코호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건강상태, 교육수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이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40코호트가 50코호트보다 건강상태가 크게 나빴는데, 건강상태 변수 측정 시점이 2006년 기준이므로 연령효과(40코호트가 50코호트보다 나이가 많음)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 40코호트, 45코호트보다 50코호트가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이 매우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40코호트 25.1%, 45코호트 34.8%, 50코호트 46.5%였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도 40코호트는 19.3%, 45코호트 45.9%, 50코호트 54.0%로 크게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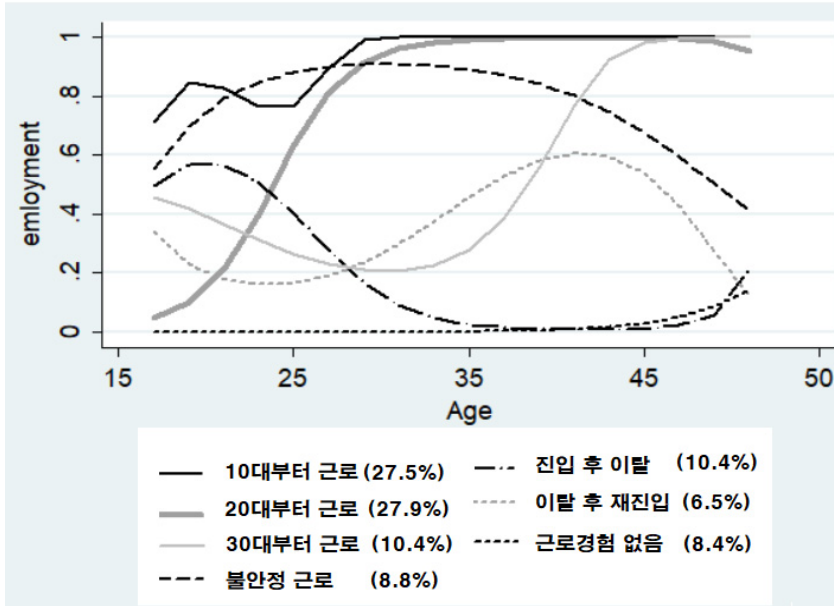
2.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유형화

여기서는 은퇴과정의 총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5~68세 경제활동상태를 주된 근로연령대인 15~50세 시점 노동계적과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경험하는 51~68세 기간의 노동계적을 분석하였다.

가. 15~50세 근로생애 유형화

15~50세까지 관측된 취업여부 배열자료를 이용해 노동계적을 분석한

[그림 3-3] 15~50세 근로생애 근로계약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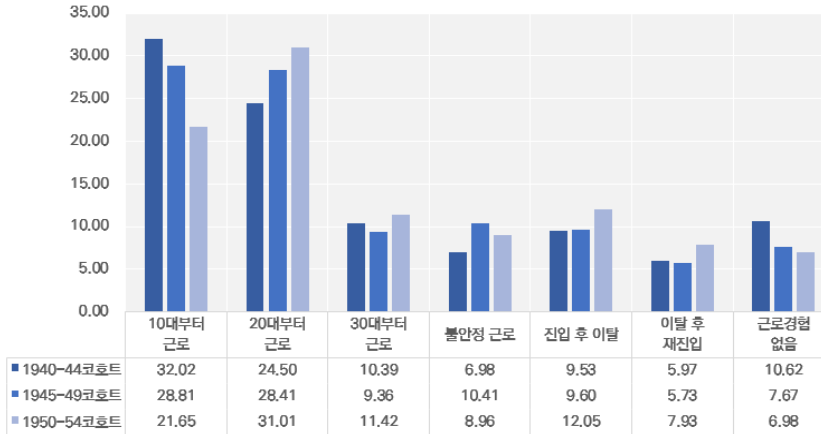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총 7개의 유형이 도출됐다. X축은 나이이고 Y축은 경제활동상태(1=취업, 0=미취업)이며, 각 계약은 연령 변화에 따른 취업확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20대부터 일자리에 진입해 계속 일을 유지하는 유형('20대부터 근로', 27.9%)이었다. 10대부터 취업해서 계속 일을 한 유형('10대부터 근로', 27.5%), 취업했다가 미취업자로 이탈하는 유형('진입 후 이탈', 10.4%), 30대부터 일을 시작한 유형('30대부터 근로', 10.4%), 10대에 취업해서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유형(고용불안정, 8.8%), 계속 일을 하지 않은 유형('근로경험 없음', 8.4%), 여성의 생애주기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이탈 후 재진입 유형('이탈 후 재진입', 6.5%)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7개 유형에서 나타나는 취업확률의 변화 유형은 세 코호트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각 유형별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그림 3-4 참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카이스퀘어 테스트(χ^2 -test)를 이용해

[그림 3-4] 15~50세 근로생애 근로계직의 분포 변화(출생코호트 차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생코호트 집단별 근로생애 유형의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50코호트는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10대보다는 20대부터 일을 시작한 유형이 더 많았다. 이는 50코호트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탈 후 재진입 유형’과 ‘진입 후 이탈 유형’이 증가하고 ‘근로경험 없음 유형’은 감소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⁵⁾

나. 51세~60대 은퇴과정 유형화

[그림 3-5]는 51~60세 이후에 관측된 취업여부 배열자료를 이용해 노동계직 유형을 도출한 것이다. 은퇴과정은 5개의 유형 - ‘계속 근로’, ‘가교 일자리’,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근로 안 함’ - 이 도출되었다.

- 5) 여성과 남성의 생애과정 차이를 고려해 두 집단을 나누어 근로생애, 은퇴과정을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의 근로계직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동일한 계직함수에 의해 도출되는 근로계직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을 별도로 분석할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도출된 ‘진입 이탈’ 유형은 사실 완전 다른 근로계직 함수를 갖는 이질적 유형일 수 있다.

5개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구별된다. 첫째,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집단-‘계속 근로’, ‘가교일자리’, 둘째, 은퇴하는 집단-‘50대부터 점진적 은퇴’,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셋째, 일하지 않는 집단이다. ‘계속 근로’는 50대와 60대에도 취업확률이 1에 가까이 유지되는 집단이다. ‘가교 일자리’는 50대에 취업확률이 40% 미만으로 감소하다가 50대 이후 증가하여 60대에는 60%로 증가하는 집단이다⁶⁾. ‘50대부터 점진적 은퇴’는 50대부터 취업확률이 점차 감소하는 집단이다. ‘60대부터 점진적 은퇴는’ 60세 이후부터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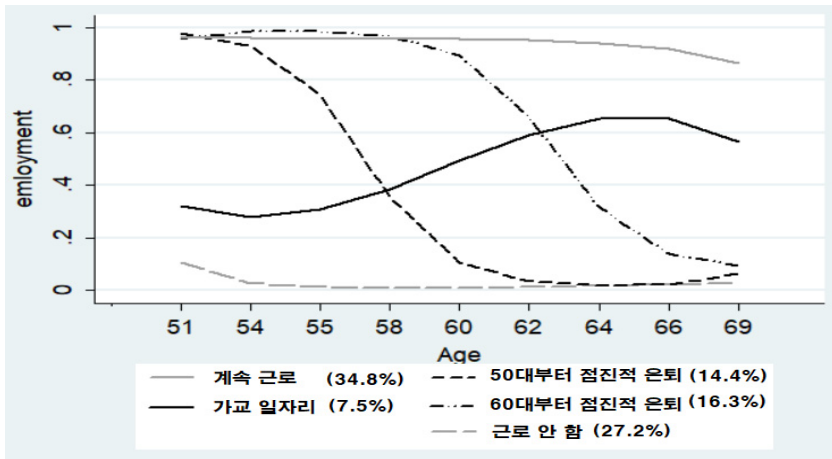
유형별 분포를 보면, 60대까지 계속 일하는 ‘계속 근로’ 유형이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하지 않는 경우(‘근로 안 함’, 27.2%), ‘60대부터 점진적 은퇴’(16.3%), ‘50대부터 점진적 은퇴’(14.4%), ‘가교 일자리’(7.5%) 순이었다.

[그림 3-6]은 [그림 3-5]의 은퇴과정 근로계약 유형의 코호트 간 분포 변화이다. 50코호트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가교 일자리 유형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정 연령 이후 은퇴하는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과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은 50코호트가 40코호트, 45코호트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일하지 않는 유형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조금 증가했다. 요컨대,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50코호트가 퇴직을 미루고 더 오래 일을 하거나 가교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은퇴하는 경우에는 45코호트가 40코호트보다 더 일찍 은퇴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한편, 연금개시 연령인 60세 이후 취업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정형화된 은퇴유형인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은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50코호트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조기은퇴 유형인 ‘50대부터 점진적 은퇴유형’은 40코호트 15.3%, 45코호트 16.7%로 50코호트(11.2%)보다 높은

6) 가교 일자리(bridge job)는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노년기에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Dingemans, Henkens, and Solinge, 2016: 631; Quinn, 1996: 56), 본 연구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는’ 특성이 관측되는 유형을 ‘가교 일자리’ 유형으로 지칭하였다. 한편, ‘가교 일자리’는 점진적 은퇴(gradual retirement)의 한 유형이지만 여기서는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장하는 특성을 보이는 노동계적을 ‘점진적 은퇴’ 유형으로, 노동시장 퇴장과 재진입 특성이 관측되는 유형을 ‘가교 일자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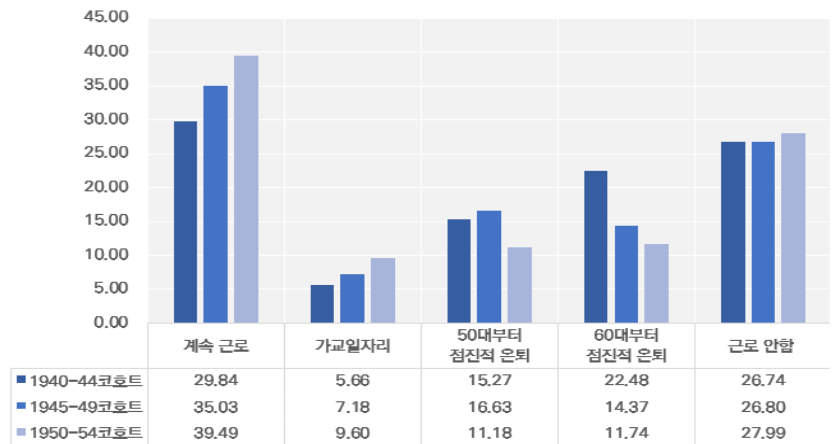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코호트별 고용률 추이(그림 2-12 참조) 분석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50대였던 코호트가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 40코호트와 45코호트가 40대 후반부터 50대에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그림 3-5) 51~68세 은퇴과정 근로계약 유형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 51~68세 은퇴과정 근로계약 유형 분포 변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3>은 은퇴과정 유형별 일자리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일자리 특성은 15~52세까지 경험한 주된 일자리(10년 이상 일한 직업), 경험한 일자리의 수, 가장 오래 한 일의 평균 기간으로 확인했다. 세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1년 단위 직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 52세이므로, 15~52세까지의 일자리 정보를 비교하였다.

50코호트는 40코호트, 45코호트보다 주된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계속 근로’,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에서 감소 폭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는 50코호트 집단 중 중고령기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에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근로생애를 경험한 집단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체적 경향과 다르게 ‘근로 안 함’ 유형에서는 50코호트가 40코호트, 45코호트보다 주된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노동시장에서 일찍 이탈한 집단 혹은 조기은퇴를 경험한 집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험한 일자리의 수, 가장 오래 한 일의 근속기간도 주된 일자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50코호트가 40코호트, 45코호트보다 가장 오래 한 일의 근속기간, 경험한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표 3-3> 은퇴과정 유형에 따른 경험한 일자리의 특성 변화

	경력 일자리 있음 (%)				경험한 일자리의 수(개, 평균)				가장 오래 한 일 기간(경력) (년, 평균)			
	40 코호트	45 코호트	50 코호트	40과 50 차이 (%)	40	45	50	차이	40	45	50	차이
계속 근로	81.8	80.2	76.1	-5.7	4.24	4.12	4.10	-0.14	20.2	19.3	17.1	-3.1
가교 일자리	46.6	40.5	45.5	-1.1	3.86	3.66	3.66	-0.20	11.6	11.0	11.9	+0.3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74.6	78.2	66.7	-7.9	3.68	3.86	3.67	-0.01	17.1	16.7	15.4	-1.7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75.2	78.1	74.3	-0.9	4.26	4.24	3.69	-0.57	18.4	18.1	16.9	-1.5
근로 안 함	26.4	32.5	32.9	+6.5	2.30	2.99	2.83	+0.53	10.2	10.0	9.8	-0.4
전 체	62.4	63.9	59.8	-2.6	3.69	3.79	3.63	-0.06	16.5	15.8	14.5	-2.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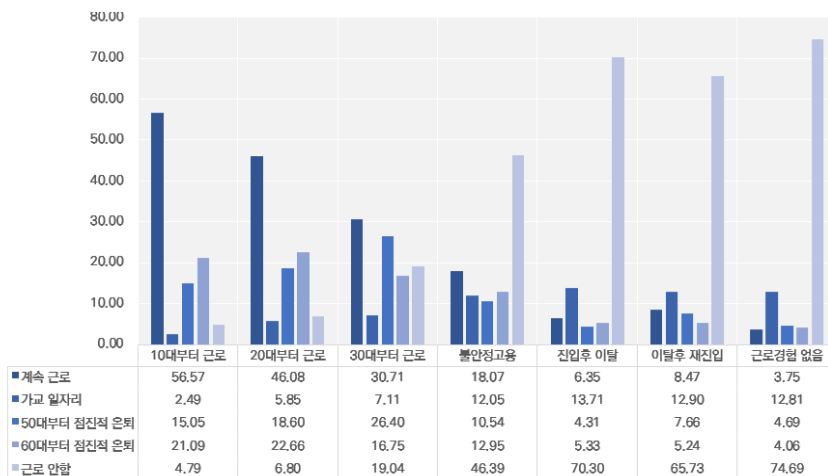
제5절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

1.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그림 3-7]은 근로생애 유형에 따른 은퇴과정 유형의 분포이다. 근로생애 유형 중 일하는 집단인 ‘10대부터 근로’, ‘20대부터 근로’, ‘30대부터 근로’는 은퇴유형 중 ‘계속 근로’와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부터 50세까지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근로’ 유형은 ‘근로 안 함’ 유형과 ‘계속 근로’ 유형의 비율이 높았는데, 근로생애의 불안정 근로경험이 노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근로생애 유형 중 일을 하다 중단하거나, 중단 후 재진입하거나, 일한 경험이 없는 유형은 은퇴과정 유형도 ‘근로 안 함’ 비율이 매우 높았고, 정년 이후 은퇴를 반영하는 점진적 은퇴유형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3-7) 근로생애 유형에 따른 은퇴과정 유형의 분포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 코호트별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분포

(단위: %)

	10대부터 근로			20대부터 근로			30대부터 근로			불안정 근로			진입 후 이탈			이탈 후 재진입			근로경험 없음		
	40	45	50	40	45	50	40	45	50	40	45	50	40	45	50	40	45	50	40	45	50
계속	51	56	66	39	44	53	19	30	42	18	19	17	2	6	10	4	10	11	3	4	5
가교	1	3	4	6	5	7	4	9	8	12	9	16	15	13	13	3	14	20	8	16	17
50대	15	18	11	22	21	14	29	33	19	11	12	8	0	7	6	9	6	8	7	3	3
60대	28	19	13	30	21	18	30	9	10	21	11	9	4	6	6	12	1	3	5	1	6
안함	5	4	6	3	9	8	18	18	21	38	49	50	78	69	65	73	69	58	77	76	6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는 코호트별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교차 분포를, [그림 3-8]은 <표 3-4>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형적 은퇴유형인 60대부터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유형과 근로생애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40코호트, 45코호트에 비해 50코호트에서 60대부터 점진적 은퇴를 경험한 집단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40코호트는 10대부터 근로, 20대부터 근로, 30대부터 근로를 경험한 집단이 60대부터 점진적 은퇴를 경험하는 비율이 각각 28%, 30%, 30%로 큰 차이가 없거나 같았다. 그러나 45코호트는 19%, 21%, 9%로, 50코호트는 13%, 18%, 10%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정년을 채우고 정형화된 은퇴를 경험하는 집단이 주로 20대부터 근로를 경험한 집단, 30대부터 근로를 경험한 집단에 집중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45코호트와 50코호트의 교육수준 상향화를 고려할 때,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고 은퇴를 경험하는 정형화된 은퇴유형이 포착되는 ‘생애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가 특정 집단에 집중됨을 보여준다.

노년에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유형과 근로생애의 관계 변화를 확인한 결과, ‘10대부터 근로’, ‘불안정 근로’, ‘20대 중반부터 근로’ 유형은 세 코호트 모두 51~68세 시기에도 계속 일을 하는 비중이 높았다. 변화를 살펴보면, ‘불안정 근로 유형’이 5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향은 50코호트에서 다소 감소하였고(17.8%→16.8%), ‘20대 중반부터 근로 유형’이 계속 일하는 경향은 50코호트에서 증가했다(39.2%→53.2%). 이는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60세 이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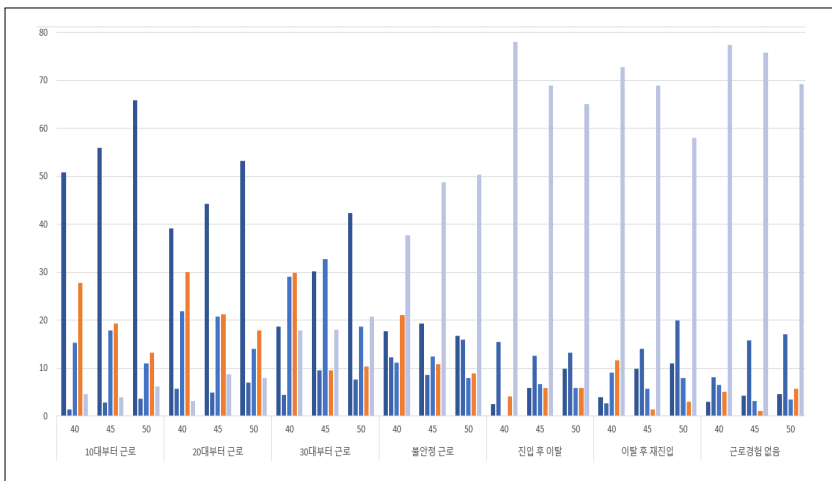
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세부터 50세까지 계속 일한 근로생애 유형 중 다수는 완전은퇴(‘근로 안 함’)를 경험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부터 일한 유형 중 50세 이후 시기에 ‘근로 안 함’ 비중은 40코호트는 3.2%였는데, 50코호트에서는 7.9%로 증가했다. 30대부터 일한 유형 중 ‘근로 안 함’ 비중은 40코호트 17.9%에서 50코호트 20.8%로 증가하였다. 이는 50세 이후 조기 퇴직한 집단이 40, 45코호트보다 50코호트에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40코호트, 45코호트, 50코호트의 근로생애 유형 모두에서 50대부터 점진적 은퇴유형이 증가하고, 60대부터 점진적 은퇴유형은 감소하였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앞에서 확인한 정형화된 은퇴과정을 경험하는 집단이 특정 집단에 집중됨과 동시에 은퇴 과정이 분화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주로 여성의 근로생애를 반영하는 ‘근로 경험 없음 유형’은 51~68세에도 일을 하지 않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런 경향은 50코호트에서 약화되었다. ‘이탈 후 재진입 유형’은 50코호트가 40코호트, 45코호트에 비해 일을 계속하는 경향이 커지고,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50대부터 점진적 은퇴’하거나 완전 은퇴하는(‘근로 안 함’) 유형은 감소하였다.

〈그림 3-8〉 근로생애 유형에 따른 은퇴과정 유형 분포의 변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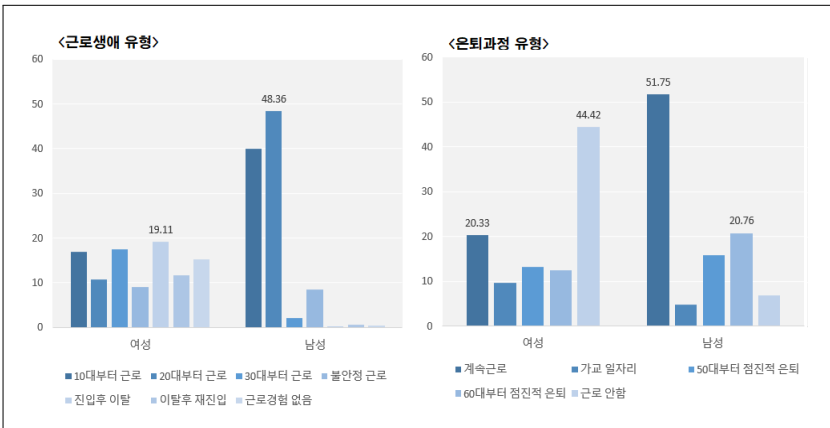
여기서는 앞에서 확인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성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확연히 다른 생애주기와 근로 경험을 가지므로,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의 영향 역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9]는 남성과 여성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유형 분포이다. 남성은 근로생애 유형 중 일하는 집단(‘10대부터 근로’, ‘20대부터 근로’, ‘30대부터 근로’, ‘불안정 근로’)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일을 중단하거나 재취업하는 유형 혹은 일한 경험이 없는 집단 비중은 매우 낮았다. 반면, 여성은 7개 유형에 고르게 분포하였는데, 남성보다 ‘진입 후 이탈’, ‘이탈 후 재진입’, ‘근로경험 없음’ 비율이 높았다.

은퇴과정 유형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남성은 50대 이후 계속 일하는 유형인 ‘계속근로’ 유형이 51.8%로 과반수였는데, 여성은 50대 이후 일하지 않는 유형인 ‘근로 안 함’이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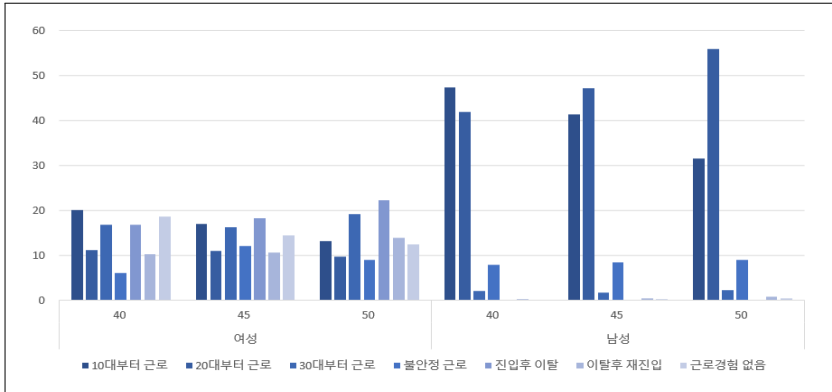
이어서, 코호트별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변화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9]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유형 분포(성별 비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0] 근로생애 유형 변화(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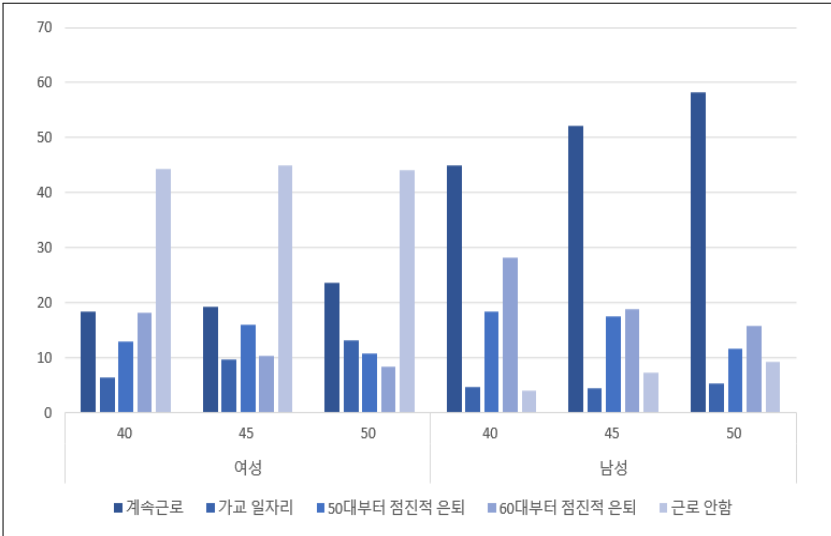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남성은 20대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은 10대부터 일하는 유형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가 이탈하는 유형이 증가했으나,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진입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유형이 감소했다. [그림 3-10]은 남성과 여성의 은퇴과정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은 50대에 점진적인 은퇴를 경험하는 유형이 감소하고 계속 일을 하는 유형이 증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50대에 은퇴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유형도 증가하였다. 여성은 계속 일하는 유형과 가교일자리 유형이 증가하였다.

[그림 3-11]은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빈도분포의 코호트,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남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10대부터 일하거나, 20대 중반부터 근로, 불안정 고용 유형의 은퇴과정 유형 분포를 확인한 결과, 20대에 일을 지속적으로 한 남성이 최근 코호트에서 일을 지속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60대부터 점진적인 은퇴를 경험하는 유형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가교일자리 유형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경향에 있어서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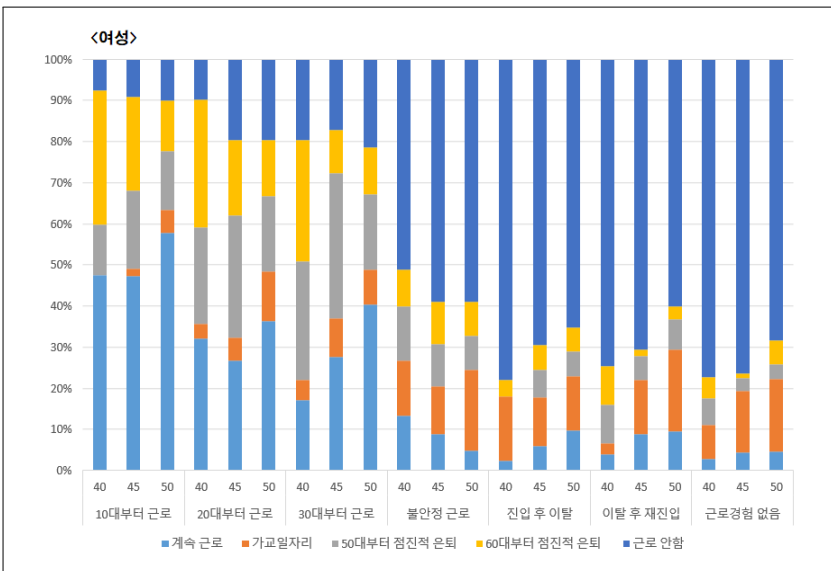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을 한 근로생애 유형에서 50대에도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주목할 점은 가교일자리 유형이 증가하고, 50대 이후 점진적 은퇴를 하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⁷⁾

[그림 3-11] 은퇴과정 유형 변화(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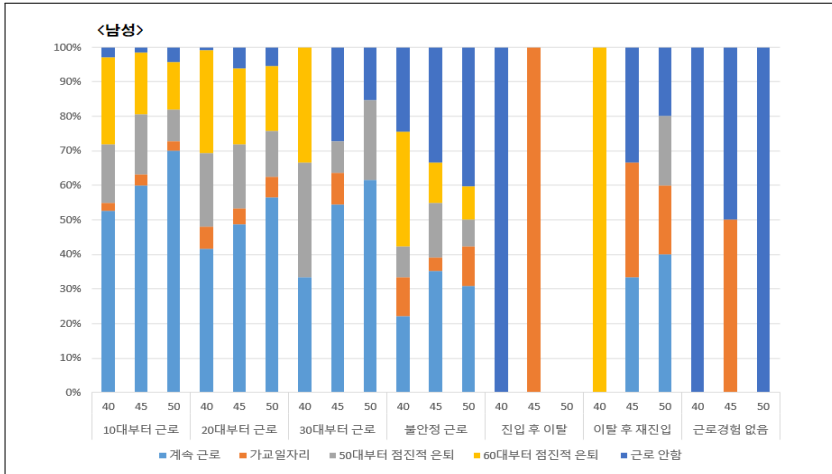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2]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성별 비교)



7) 50대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50.4%에서 2006년 54.7%로 증가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12)의 계속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6절 소 결

본 연구는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고령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1940~54년생이 만 15세부터 68세(1954년생은 62세)까지 경험한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생애과정 관점에서 1940~54년생이 경험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은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경제적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3개의 출생코호트로 나누어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변화를 코호트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0~54년생이 15~68세에 경험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변화를 유형화한 결과, 15~50세까지의 근로생애는 7개로, 51~68세까지의 은퇴과정은 5개로 유형화되었다. 근로생애 유형은 ‘20대부터 근로’(27.9%), ‘10대부터 근로’(27.5%), ‘진입 후 이탈’(10.4%), ‘30대부터 근로’(10.4%), ‘불안정 근로’(8.8%), ‘근로경험 없음’(8.4%), ‘이탈 후 재진입’(6.5%)의 7개 유형이 식별되었다. 은퇴과정은 ‘계속 근로

로’(34.8%), ‘근로 안 함’(27.2%), ‘60대부터 점진적 은퇴’(16.3%), ‘50대부터 점진적 은퇴’(14.4%), ‘가교 일자리’(7.5%)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40, 45, 50코호트는 매우 다른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 점진적인 은퇴를 경험하는 정형화된 은퇴과정 경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특정 집단(20대부터 근로)에 집중되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또한, 50코호트에서 계속 일을 하는 유형이 증가했다. 근로생애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실직, 시간제 근로, 자영업 등이 증가하고, 주된 일자리 경험률, 일자리 지속 기간이 감소하는 등의 불안정한 근로 경험도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제도의 도입과 공적연금제도 성숙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호트가 경험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이 과거보다 불안정하고, 분화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셋째, 은퇴과정은 15~50세까지 경험한 근로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른 시기부터 일을 한 경우 중고령기에도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경험한 경우 중고령기에 점진적 은퇴, 가교 일자리 유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은퇴과정의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세 코호트에서 은퇴과정의 변화가 포착됐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단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매우 이질적인 은퇴과정을 경험하고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집단의 내적 이질성과 격차를 고려한 사회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로 은퇴과정의 성별 차이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이 경험하는 근로생애, 은퇴과정은 남성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생애과정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여성이 경험하는 근로생애의 불안정성이 5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73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도 은퇴를 앞두고 있으

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더 높아졌다. 성인지적인 노후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개시 연령의 연장을 고려할 때,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집단이 더 증가할 수 있다.⁸⁾ 그러나 중고령자가 일할 기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연장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의 소득절벽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고령자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일자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중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급여 수준이 월 27만 원인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신중년세대를 위한 일자리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다양한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활기찬 노화(Active ageing)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1998년의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1세로 증가하였고 2033년에 65세로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70%에서 1999년에는 60%, 2008년에는 50%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부터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된다(신화연, 2015: 19).

제 4 장

근로생애의 변화가 고령자 고용에 미친 영향

제1절 연구목적

서구에서는 20세기 이후,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적 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Coile, 2015).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 혹은 건강이 허락하는 시점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Slavick, 1966). 또한, 다양한 공적부양 제도들이 확대되고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하기 시작하였다(Ebbinghaus, 2006).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적연금 외에 실업급여도 조기 은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노동은 서구 국가들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도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오히려 증가하였고(이철희, 2006),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된 2000년대 이후에도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감소하지 않았다(이승호, 2019).

한국 사회의 고령노동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고, 서구와 비슷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유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고령노동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농업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한 산업화 시기에 생산연령대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같이 발생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령노동의 수요 감소보다 농촌 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고령자 노동참여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해당 시기에 고령노동이 증가했다(이철희, 2006). 2000년대 이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 역시 서구와 달리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줄이지 않았는데,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 수급률이 낮고,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하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이승호,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서구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한 주된 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만, 높은 수준의 고령자 노동참여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더라도, 농업 내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두 가지 변화는 서로 상쇄되며, 결국 노동시장에 참여한 고령자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대다수의 고령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특정 급여의 수급이 은퇴 선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제도적인 변화가 고령노동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관측되는 고용률의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한 고령자의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던 집단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집단이 늘어나는 변화들이 관측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전체 근로생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이러한 고령자 노동참여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노동계적은 이전까지의 각종 이행들, 개인의 습관이나 선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Wang and Shultz, 2010). 제3장의 분석결과는 근로연령대의 노동계적이 고령기 이후의 노동계적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각 시점에 관측되는 고용지표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노동계적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특정 시점에 관측되는 고령 인구집단의 노동참여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근로연령대의 노동경력 변화가 고령자 집단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앞서 제시한 제2장과 제3장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근로연령대 노동경험의 차이를 변수화한 후, 재가중 분해방법(reweighting decomposition method)을 적용하여 근로생애의 변화가 고령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이 분석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고령 인구집단의 고용률 변화를, 근로생애 노동계적을 포함한 제반 특성의 변화로 인한 차이와, 개별 특성들과 노동참여 사이의 관계 변화로 인한 차이로 구분해서 보여준다. 또한, 세부분해(detailed decomposition)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른 특성들의 변화를 통제한 조건에서, 고령자의 근로생애 노동계적 구성 변화가 고용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의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함께, 성별 집단을 구분한 분석을 같이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론적 측면에서 생애과정 관점으로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노동계적의 변화가 현 시점에 관측되는 고령자의 고용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의 고령노동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이들이 근로생애 동안 경험한 노동계적의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경험할 은퇴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 및 은퇴과정을 추정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제4장의 분석자료는 제3장에서도 사용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자료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4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임의표집한 10,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격년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고령자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우수한 자료이고, 연구의 분석대상인 1940~54년생 인구집단에 속하는 충분한 사례 수를 제공한다.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한다는 장점도 있다. 단, 1차 조사 자료의 경우 일부 설문 문항의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08년(2차) 조사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인 2016년(6차) 조사를 비교한다. 응답자 개인의 근로연령대 노동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2007년에 따로 실시된 직업력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008년(2차) 또는 2016년(6차) 기본조사에 응답하였고, 동시에 2007년의 직업력 조사로 근로생애 관련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3장의 분석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근로생애 노동궤적이 확인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2008년과 2016년은 정확히 8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 63~69세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2008년 조사는 1940년생부터 1946년생까지를, 2016년 조사는 1948년생부터 1954년생까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분석대상 선정은 두 시점에서 관측된 사례들의 연령범위를 동일하게 맞춰서 연령 차이로 인한 편의를 줄이고, 두 시점에서 중복 관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⁹⁾ 최종 분석대상은 2008년 1,694명, 2016년 1,471명으로, 총 3,165명이다. 모든 분석에는 각 조사 차수별 횡단 가중치를 적용한다.

2. 변수 측정

이 연구의 결과변수는 고령자 개인의 취업여부이며, 2008년과 2016년

9) 앞에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5세 기준 연령집단으로 출생코호트를 구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근로생애 노동궤적 변화의 영향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2개의 출생코호트로 구분하였다.

두 자료의 조사시점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설명변수는 고령자가 근로생애 동안 경험한 노동계적이다.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수는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값을 가져와 사용한다. 앞의 분석에서는 고령자가 15~50세 사이에 경험한 노동계적에 따라 7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10대부터 계속 근로형, ② 20대부터 계속 근로형, ③ 30대부터 계속 근로형, ④ 불안정 근로형, ⑤ 취업 후 이탈형, ⑥ 이탈 후 재진입형, ⑦ 비근로형으로 측정하였다.

그 외의 설명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근로생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변수를 포함한다. 이 요인들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성 변수는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측정하고, 연령 변수는 각 조사 시점의 응답자 연령을 의미한다. 재가중 분해에서는 동일 코호트 내에서의 연령 분포를 조정할 목적으로 63~64세, 65~66세, 67~69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변수로 사용한다. 교육수준은 분석 모형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더미변수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으로 단순화한 변수를 활용한다.

앞서 제2장에서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 수가 적어지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설명변수군으로 가족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며, 결혼지위, 자녀 수 변수와 거주 지역 변수를 포함한다. 결혼지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측정하며, 자녀 수 변수는 재가중 분해에서 1명 이하, 2명, 3명 이상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한다. 거주 지역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한 더미 변수로 측정한다.¹⁰⁾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설명변수군은 주된 일자리를 시작한 시점, 주로 경험한 산업, 주로 종사한 노동지위 변수들로 구성된 노동시장 요인이다.

10) 가족 관련 변수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인 청년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지만, 분석자료의 한계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할 변수로 대체한다.

이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는 고령자가 근로생애 동안 경험한 노동계적의 유형이다. 다만, 이 변수는 단순히 취업여부의 종단적 변화에 기초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일자리의 시작 시점은 응답자가 10년 이상 경험한 일자리에 진입하게 된 시점의 연령을 의미한다. 주로 경험한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서 응답자가 가장 오래 경험한 산업을 의미하며, 10년 이상 종사한 산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이 없다고 측정한다. 주로 경험한 종사상 지위는 상시 임금근로, 자영업 및 농업, 일용 근로 및 기타 일자리로 구분하며,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경험한 종사상 지위가 없는 경우에는 비근로로 측정한다. 단, 재가중 분해 시에는 각 변수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DiNardo, Fortin, and Lemieux(1996)이 제시한 재가중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고령자의 근로연령대 노동계적의 변화가 2008년(t0)과 2016년(t1) 사이 고령자의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재가중 분해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으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정한 모형을 추정하지 않고 특정 영향요인의 변화가 결과변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ortin, Lemieux, and Firpo, 2011).

재가중 분해방법은 재가중치를 산출하여 두 시점 사이의 설명변수 분포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t1 시점의 관측 표본에 재가중치를 부여하여 t0 시점과 설명변수의 분포가 동일하게 조정된 표본(t1c)은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는 관측된 시점(t1)의 값을 그대로 가지면서, 설명변수의 분포만 다른 시점(t0)의 특성을 가지는 가상의(counterfactual) 분포가 된다. 따라서 재가중 표본(t1c)과 관측된 두 표본(t0, t1) 사이의 결과변수 차이는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로 인한 차이와 기타 다른 요인의 변화로 인한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¹¹⁾ 여기서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로

인한 차이를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s),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차이를 구조효과(structural effects)라고 하며, 두 시점 간 관측된 차이를 두 가지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집계분해(aggregate decomposition)라고 한다(Fortin et al., 2011).

두 시점 간 설명변수(x)의 분포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 $\psi(x)$ 는 다음의 수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Fortin et al., 2011). 수식에서 $\Pr(T_1 = 1)$ 이나 $\Pr(T_1 = 0)$ 의 값은 각 시점별 관측 표본에서의 기술분석으로 계산하고, $\Pr(T_1 = 1|X)$ 과 $\Pr(T_1 = 0|X)$ 은 두 시점의 분석자료를 병합(pooling)한 후, 개별 관측 사례들이 t_1 시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과변수로 한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¹²⁾

$$\psi(x) = \frac{\Pr(X|T_1 = 0)}{\Pr(X|T_1 = 1)} = \frac{\Pr(T_1 = 0|X)\Pr(T_1 = 1)}{\Pr(T_1 = 1|X)\Pr(T_1 = 0)}$$

개별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가 미친 영향은 세부분해(detailed decomposition)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재가중 분해의 세부분해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에 위계적으로 순서를 부여한 후, 두 시점의 관측 표본 간 설명변수의 분포 조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이원진, 2018; Altonji, Bharadwaj, and Lange, 2012; Fortin et al., 2011; Ku, Lee, Lee, and Han, 2018; 이승호, 2019에서 재인용). 예컨대, 첫 번째 재가중치로 t_1 시점의 x_1 특성 분포를 t_0 시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두 번째 재가중치로 t_1 시점의 x_1 특성 분포와 x_2 특성 분포를 t_0 시점과 동일하게 조정했다면, 첫 번째 재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의 고용률과 두 번째 재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의 고용률 간 차이를 x_2 특성 분포의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한다.

11) 기타 다른 요인에는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설명요인들의 분포 변화로 인한 차이,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 변화로 인한 차이 및 연구모형의 오류로 인한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2) 재가중치 추정을 위한 프로빗(로짓) 모형에는 설명변수들의 다양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해야 하며, 재가중치를 적용한 후 관측된 표본과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고, 해소되지 않은 차이가 있으면 재가중치를 다시 추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구체적인 추정 과정은 Fortin et al.(2011)을 참고할 것.

이러한 세부분해 분석은 특정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가 결과변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도 재가중 분해방법의 세부분해 분석을 활용하여, 근로생애의 노동계적 유형 변화로 인한 2008~2016년 고령자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다. 다만, 세부분해의 결과가 설명변수에 부여한 위계적 순서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의 예시에서는 x1 특성 분포를 먼저, x2 특성 분포를 나중에 조정했는데, 순서를 반대로 하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맞게 설명변수의 순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근로생애의 노동계적이 주된 설명변수이며,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 노동생애 특성을 보조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위계적인 순서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개별 요인이 결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주된 일자리) 특성의 순서로 분포를 조정한다. 성과 연령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고, 교육수준은 생애 초기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별다른 이슈가 없어 보인다. 가구 특성과 노동시장 특성은 개인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일자리 관련 특성은 오랜 기간을 경과하면서 결정되는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가구 특성을 먼저 배치한다.¹³⁾ 설명변수의 위계적 순서를 고려하여, 세부분해에서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¹⁴⁾

재가중 표본 1은 2016년의 설명변수 분포에서 인구학적 특성 분포만 2008년의 값으로 조정된 것을 의미하며, 재가중 표본 2는 인구학적 특성 분포에 추가로 가구 특성 분포가 2008년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¹⁵⁾ 인구

13) 노동시장 특성 중 주된 일자리를 시작하는 시점 변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로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14) 개별 설명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세부분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보다 간명하게 조정하였다.

15) 반대로 2008년에 관측된 표본이 2016년의 설명변수 특성 분포를 지니도록 조정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기준 시점의 설정은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 설정과 관련되며, 분석결과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과 가까운 2016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책적인 함의 제시 등에서 더 유용

학적 특성 분포 변화의 영향은 2016년 표본과 재가중 표본 1의 결과변수 차이로 추정하며, 가구 특성 분포 변화의 영향은 재가중 표본 1과 재가중 표본 2의 결과변수 차이로 추정한다. 순서대로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근로생애 노동계적의 변화로 인한 고령자 고용률의 변화 정도는 재가중 표본 3과 재가중 표본 4의 차이로 추정한다. 재가중 표본 4와 2008년 관측 표본은 설명변수의 분포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표본의 고용률 차이는 구조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 설명변수의 위계적 순서

추가한 설명변수	세부분해 순서					
	2016 표본	재가중 표본 1	재가중 표본 2	재가중 표본 3	재가중 표본 4	2008 표본
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 특성(결혼지위, 자녀 수, 거주 지역)						
노동시장 특성(주된 일자 리, 주된 산업, 주된 지위)						
근로생애 노동계적						

자료: 저자 작성.

재가중 분해 분석은 비모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계분해와 세부분해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분해의 기본 원리는 Oaxaca-Blinder 분해와 같은 모수적인 분해방법과 비슷하다. 따라서 분해분석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2008년과 2016년의 두 시점 사이에 설명변수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각 시점에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된다(이원진, 2018; 이승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중 분해의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i) 결과변수 및 설명변수의 시점 간 특성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 ii) 두 관측 시점에서의 횡단적 관계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을 선행한다.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3절 분석결과

1. 근로생애 특성 및 고령자 고용률의 변화

다음의 <표 4-2>는 1940~46년 출생코호트(40코호트)와 1948~54년 출생코호트(48코호트)의 2008년과 2016년 고용률과 두 시점 간 변화 정도를 보여준다. 전체 분석대상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1940~46년생 코호트는 63~69세 시점에 고용률이 37.1% 수준이었지만, 1948~54년생 코호트는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이 47.2%에 달했다. 두 출생코호트의 고용률 차이는 10.1%p였고,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집단 간 고용률 차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고용률 증가 추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의 확대 과정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인 변화이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확연히 감소하긴 했지만, 노인을 포함한 고령자가 주로 속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2008~2016년 기간에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2008년 7.6%에서 2016년 5.3% 수준까지 줄었다(이승호, 2019). 또한, 한국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20년 가입기간을 충족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출현하였고, 같은 시기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해당 시기 한국 고령자의 고용률 증가 추이는 서구와는 다른 요인의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표 4-2> 분석대상 코호트의 63~69세 고용률 차이

(단위: %, %p)

	1940~46년생 (2008)	1948~54년생 (2016)	차이
전 체	37.1	47.2	+10.1
남성	51.9	63.5	+11.6
여성	24.0	30.9	+6.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 변화 정도가 여성 고령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008년 40코호트의 남성 고령자는 고용률이 51.9%였지만, 2016년의 48코호트 남성 고령자는 고용률이 63.5%로 11.6%p가 높아졌다. 같은 시기에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도 6.6%p 증가했지만,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 격차는 2008년 40코호트가 27.9%p 수준이었으나, 2016년 48코호트에서는 32.6%p로 더 크게 벌어졌다. 이와 같은 성별 고용률 격차의 변화는 영향요인에 있어서도 두 집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표 4-3>은 이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인 근로생애 노동계적의 변화를 보여준다. 출생코호트별 근로생애 노동계적의 분포는 제3장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¹⁶⁾ 40코호트에서는 10대부터 계속 근로한 집단이 31.3%로 가장 많았고, 20대부터 계속 근로한 집단이 27.6%로 뒤를 이었다. 생애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은 10.0% 수준이었고, 3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의 규모는 각각 6.1~9.1%로 나타났다.

<표 4-3> 분석대상 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전체)

(단위: %, %p)

노동계적 유형	1940~46년생 (2008)	1948~54년생 (2016)	차이
10대부터 계속 근로형	31.3	22.2	-9.1
20대부터 계속 근로형	27.6	32.3	+4.7
30대부터 계속 근로형	9.1	11.3	+2.2
불안정 근로형	7.4	9.7	+2.3
진입 후 이탈형	8.6	10.7	+2.1
이탈 후 재진입형	6.1	7.0	+0.9
비근로형	10.0	6.7	-3.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6) 제3장의 40코호트는 1940~44년생 연령집단이고, 제4장의 40코호트는 1940~46년생 연령집단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8코호트가 경험한 근로생애는 40코호트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이 32.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40코호트에 비해 4.7%p 높아진 것이다. 반면, 10대부터 계속 근로한 집단의 비중은 22.2%로 9.1%p 감소하였다. 3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이 2.2%p 증가한 11.3%로 셋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동시장에 진입 후 이탈한 집단의 비중도 10.7%로 나타나 2.1%p 증가했다.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비근로형은 6.7%로 40코호트에 비해 3.3%p 감소하였다.

요컨대, 48코호트는 40코호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근로생애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점이 늦어진 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진 점,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표 4-4>는 두 출생코호트 간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를 성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40코호트의 남성 고령자는 대다수가 10대 혹은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계속 근로를 했으며, 두 계적의 비중이 비슷하였다. 두 유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48코호트에서도 유사했지만,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중은 감소하고 20대에 노동시장

<표 4-4> 2008~2016년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성별)

(단위: %, %p)

노동계적 유형	남성			여성		
	1940~ 46	1948~ 54	차이	1940~ 46	1948~ 54	차이
10대부터 계속 근로형	43.9	30.8	-13.1	20.2	13.7	-6.5
20대부터 계속 근로형	45.8	55.3	+9.5	11.6	9.3	-2.3
30대부터 계속 근로형	1.8	2.5	+0.7	15.4	20.2	+4.8
불안정 근로형	7.7	10.1	+2.4	7.2	9.3	+2.1
진입 후 이탈형	0.2	0.0	-0.2	15.9	21.5	+5.6
이탈 후 재진입형	0.5	0.6	+0.1	11.1	13.3	+2.2
비근로형	0.1	0.7	+0.6	18.6	12.8	-5.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에 진입한 궤적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48코호트에서는 불안정 근로형의 비중도 2.4%p 증가하였다.

여성 고령자의 근로생애 노동궤적은 남성 고령자에 비해 더 역동적인 변화를 보였다. 40코호트에서는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궤적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 고령자의 20.2%에 불과했고, 불안정 근로형을 제외한 모든 노동궤적이 두 자릿수의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노동궤적의 분화 양상은 48코호트에서도 비슷했지만, 노동시장에 이탈 후 재진입한 이른바 M자 형태의 노동궤적 비중이 21.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중도 20.2%로 40코호트에 비해 4.8%p 증가하였다. 반면,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중은 13.7%에 그쳐서, 앞선 코호트에 비해 6.5%p 감소하였다. 비근로형의 비중도 5.8%p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는 40코호트와 48코호트 모두 근로생애의 노동궤적이 매우 상이하였다. 남성 고령자는 대부분이 10대 혹은 20대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반면, 여성 고령자는 다양한 노동궤적 양상을 보였다. 두 코호트 사이의 노동궤적 차이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고령자는 기존의 노동궤적 분포가 유지되는 선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점이 늦춰지는 변화와 불안정 근로를 경험한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반면, 여성 고령자는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궤적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2. 근로생애와 고령기 고용률의 횡단적 관계

다음으로, 2008년과 2016년의 두 시점에서 근로생애 노동궤적과 고령자의 고용률 간 횡단적 관계를 살펴본다. <표 4-5>는 근로생애 유형과 조사시점별 노동참여 여부의 관계를 단순모형과 위계모형의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단순모형은 설명변수로 근로생애의 노동궤적 터미변수만을 포함한 것이고, 위계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설명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결과변수가 고령자의 노동참여 여부를 보여주는 이분변

〈표 4-5〉 근로생애와 고령 고용률의 횡단적 관계(전체)

	1940~46년 생(2008)				1948~54년 생(2016)			
	단순모형		위계모형		단순모형		위계모형	
	B	SE	B	SE	B	SE	B	SE
노동계직								
10대부터	0.084	0.028**	0.024	0.033	0.082	0.033*	0.074	0.037*
30대부터	-0.272	0.042***	-0.180	0.050***	-0.148	0.042***	-0.019	0.051
불안정	-0.249	0.045***	-0.221	0.047***	-0.236	0.044***	-0.164	0.047***
이탈	-0.339	0.043***	-0.245	0.059***	-0.385	0.043***	-0.213	0.063***
재진입	-0.345	0.049***	-0.247	0.059***	-0.378	0.050***	-0.226	0.061***
비근로	-0.351	0.040***	-0.253	0.056***	-0.479	0.051***	-0.329	0.065***
여성			-0.180	0.032***			-0.213	0.036***
연령			-0.021	0.006***			-0.029	0.006***
교육수준								
중학교			0.006	0.030			0.039	0.034
고등학교			0.003	0.033			0.009	0.034
대학 이상			-0.067	0.048			-0.080	0.050
유배우			0.009	0.029			0.040	0.034
자녀 수			0.011	0.009			0.012	0.014
거주지역								
중소도시			-0.186	0.031***			-0.047	0.037
대도시			-0.132	0.031***			-0.043	0.036
주된 시작								
10대			0.017	0.041			-0.053	0.059
30대 이상			0.083	0.031**			0.065	0.032*
없음			-0.006	0.038			-0.021	0.037
주된 산업								
농업			0.091	0.050†			0.131	0.063*
제조업			-0.023	0.047			0.030	0.055
서비스업			-0.033	0.041			0.029	0.051
주된 지위								
상용임금			0.000	0.034			-0.018	0.031
자영업			0.000	0.038			0.003	0.049
상수	0.473	0.021***	1.960	0.370***	0.593	0.021***	2.461	0.404***
adj. R ²	.136		.184		.145		.180	
F	45.53***		17.54***		41.27***		14.98***	
N	1,694				1,471			

주: 노동계직은 20대부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거주지역은 농어촌, 주된 일자리 시작은 20대, 주된 산업은 없음, 주된 지위는 일용 및 기타가 기준집단임.

***: p<.001, **: p<.01, *: p<.05, †: p<.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수이지만, 여기서는 OLS에 기초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변수의 확률 범주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은 경우에는 선형확률모형도 로짓모형과 유사한 불편추정치를 보여주면서도(남재량·박기성, 2010), 분석결과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생애 노동계적의 기준집단은 20대부터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참여한 집단이며, 단순모형에서는 두 코호트에서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였다. 2008년과 2016년의 회귀모형 모두에서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은 60대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기준집단보다 높았지만, 다른 5개 유형의 노동계적은 기준집단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조건에서의 변수 간 관계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40코호트에서는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과 기준집단의 고용률 차이가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고, 다른 노동계적과 기준집단의 고용률 차이도 적지 않게 감소하였다. 48코호트에서는 3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과 기준집단의 고용률 차이가 사라졌고, 마찬가지로 다른 노동계적과 기준집단의 고용률 차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위계모형을 기준으로 두 코호트 사이의 근로생애와 고령자 고용률의 관계 변화를 정리하면, 40코호트에서는 10대 혹은 20대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계속 근로한 집단이 60대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았던 반면, 그 외의 다른 집단들은 고령기의 노동참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8코호트에서는 기존의 두 집단 외에 추가로, 3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도 60대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았다. 다른 4개의 노동계적은 여전히 기준집단보다 고령기 고용률이 낮았지만, 그 차이는 40코호트에 비해 감소하였다.

48코호트의 고령기 고용률이 40코호트에 비해 10.1%p가량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기준집단의 고용률에 비해 다른 노동계적의 노동참여가 더 크게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30대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의 고용률 변화가 눈에 띄었고, 비근로형을 제외한다면 불안정 노동계적 집단들도 고령기의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안정적

(표 4-6) 근로생애와 고령 고용률의 횡단적 관계(성별)

	남성				여성			
	1940~46년생 (2008)		1948~54년생 (2016)		1940~46년생 (2008)		1948~54년생 (2016)	
	B	SE	B	SE	B	SE	B	SE
노동궤적								
10대부터	-0.007	0.047	0.066	0.050	0.101	0.051*	0.206	0.068**
30대부터	-0.193	0.135	-0.033	0.120	-0.024	0.060	0.078	0.067
불안정	-0.235	0.074**	-0.083	0.068	-0.142	0.063*	-0.179	0.073*
이탈	-0.556	0.392			-0.104	0.064	-0.104	0.073
재진입	-0.289	0.277	-0.095	0.261	-0.104	0.064	-0.108	0.072
비근로	-0.675	0.514	-0.702	0.235**	-0.106	0.062†	-0.187	0.075*
연령	-0.030	0.009***	-0.043	0.009***	-0.014	0.007†	-0.013	0.008†
교육수준								
중학교	0.060	0.052	0.114	0.062†	-0.054	0.036	0.022	0.040
고등학교	-0.002	0.052	0.115	0.061†	-0.036	0.047	-0.061	0.041
대학 이상	-0.104	0.070	0.003	0.076	-0.015	0.082	-0.150	0.083†
유배우	0.007	0.066	0.151	0.069*	0.015	0.029	0.000	0.037
자녀 수	0.026	0.016	0.021	0.023	0.000	0.011	-0.009	0.016
거주지역								
중소도시	-0.139	0.053**	-0.076	0.056	-0.223	0.037***	-0.044	0.048
대도시	-0.081	0.052	-0.017	0.055	-0.175	0.037***	-0.098	0.048*
주된 시작								
10대	-0.069	0.069	-0.150	0.085†	0.038	0.051	0.052	0.082
30대 이상	0.147	0.040***	0.081	0.043†	-0.096	0.051†	-0.005	0.054
없음	0.057	0.066	0.087	0.060	0.002	0.046	-0.092	0.048
주된 산업								
농업	-0.025	0.154	0.217	0.253	0.006	0.056	-0.008	0.071
제조업	-0.183	0.150	0.096	0.247	-0.021	0.057	0.017	0.061
서비스업	-0.175	0.150	0.102	0.245	-0.042	0.040	-0.005	0.050†
주된 지위								
상용임금	0.001	0.047	-0.013	0.044	-0.040	0.053	-0.071	0.046
자영업	0.005	0.057	0.054	0.072	0.007	0.051	-0.043	0.070
상수	2.550	0.593***	3.090	0.668***	1.402	0.470**	1.372	0.523**
adj. R ²	.077		.080		.171		.134	
F	3.96***		3.72***		9.58***		6.68***	
N	777		659		917		812	

주: 노동궤적은 20대부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거주지역은 농어촌, 주된 일자리 시작은 20대, 주된 산업은 없음, 주된 지위는 일용 및 기타가 기준집단임.

***: p<.001, **: p<.01, *: p<.05, †: p<.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진 변화, 불안정한 유형의 근로생애를 경험한 집단의 고령기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아진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4-6>은 근로생애와 고령자 고용률의 횡단 관계를 성별 하위집단 별로 정리한 것이다. 40코호트의 남성 고령자는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집단만 기준집단보다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8코호트의 남성 고령자는 비근로 집단만 기준집단보다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¹⁷⁾ 앞에 제시하였듯이, 남성 고령자는 두 코호트 모두 10대 혹은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른 소규모 노동계층은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가 부족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¹⁸⁾

여성 고령자는 두 코호트 집단이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은 기준집단보다 고령자 고용률이 높았다. 다만, 그 차이는 40코호트에 비해 48코호트에서 더 커졌다.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집단과 근로생애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기준집단보다 고령기의 노동참여가 적었으며, 그 차이는 40코호트에 비해 48코호트에서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고령자 집단 내에서의 고용률 격차가 40코호트에 비해 48코호트에서 더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남성 고령자는 고령기의 노동참여가 높았던 두 집단(10대, 20대 계속 근로형)과 다른 집단의 고용률 격차가 일부 감소하였고, 여성 고령자는 40코호트에 비해 48코호트에서 근로생애 노동계층에 따른 고령기 고용률 차이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7) 48코호트의 남성 고령자 분석에서는 진입 후 이탈형이 관측되지 않아서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가 추정되지 않았다(표 4-4 참조).

18) 48코호트의 분석결과에서는 40코호트에 비해 다른 불안정 노동계층들과 기준집단의 고용률 차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관측할 수 있다. 관련 집단들의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재가중 분해 결과

가. 재가중 표본의 특성

여기서는 DiNardo et al.(1996)가 제시한 재가중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40코호트와 48코호트 간 근로생애 노동계적의 변화가 고령자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가중 분해분석에 앞서, 2016년의 관측 표본에 재가중치를 부여한 표본이 40코호트와 48코호트에서 관측된 여러 설명변수들의 차이를 적절하게 감소시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8코호트의 관측 표본에 재가중치를 적용한 재가중 표본은 이론적으로 40코호트의 관측 표본과 동일한 설명변수 분포를 지녀야 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관측 표본과 완전히 동일한 설명변수 분포를 가진 재가중 표본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¹⁹⁾

<표 4-7>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관측된 40코호트 및 48코호트의 설명변수 분포와 48코호트의 관측 표본에 재가중치를 부여한 가상 표본의 설명변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48코호트는 40코호트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늘어났고, 비교적 젊은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세 가지 차이 모두 48코호트가 40코호트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에 유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가중치를 적용하여 설명변수의 분포를 조정한 가상 표본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분포의 모든 특성에서 40코호트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표본의 설명변수 분포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두 코호트의 관측 표본 사이에 나타난 특성 차이의 상당 부분이 재가중치의 적용을 통해서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특성에서도 두 코호트의 관측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19) 이에 Black et al.(2011: 4219)에서는 재가중 표본과 관측 표본의 특성 차이를 확인한 후, 주요 변수들의 차이가 발견되면 재가중치를 다시 추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해당 조언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며, 재가중 표본과 관측 표본의 특성 차이가 가장 적게 관측된 재가중치를 이용하여 분해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7〉 관측표본과 재가중 표본의 특성 차이

(단위: %, %p)

특성	1940~ 46년생 (2008)	1948~ 54년생 (2016)	40~48 차이 검정	재가중 표본	40-재가중 차이검정
성					
남성	46.7	50.0 †		45.4	
여성	53.3	50.0		54.6	
연령					
63~64	28.3	33.6 **		31.2	
65~66	28.1	29.6		26.6	
67~68	43.6	36.8 ***		42.2	
학력					
중학교 이하	72.4	52.6 ***		70.5	
고등학교 이상	27.7	47.4		29.5	
결혼					
유배우자	81.1	83.8 *		82.3	
무배우자	18.9	16.2		17.8	
자녀수					
1명 이하	7.5	10.4 **		7.2	
2명	26.4	53.0 ***		23.5	
3명 이상	66.1	36.6 ***		69.3	
지역					
농어촌	25.8	19.8 ***		22.6	
중소도시	30.6	33.9 *		33.6 †	
대도시	43.6	46.3		43.7	
주된 일					
10대 시작	9.1	5.1 ***		11.9	
20/30 시작	61.7	62.6		58.1	
주/일 없음	29.2	32.3 †		30.0	
산업					
농림어업	14.9	12.7 †		13.4	
제조업	27.5	14.5 ***		17.5 *	
서비스업/기타	57.6	72.8 ***		69.1 *	
종사지위					
상용임금	16.6	28.1 ***		16.2	
자영업	9.9	6.9 **		8.5	
일용/기타	73.5	65.0 ***		75.3	
노동궤적					
10대 계속	31.3	22.2 ***		30.5	
20대 계속	27.6	32.3 **		25.4	
30대 계속	9.1	11.3 *		11.1	
불안정	7.4	9.7 *		8.4	
이탈	8.6	10.7 *		9.4	
재진입	6.1	7.0		7.2	
비근로	10.0	6.7 ***		8.1 †	

주: ***: p<.001, **: p<.01, *: p<.05, †: p<.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준의 특성 차이가 관측되었다. 48코호트는 40코호트에 비해 유배우자의 비중이 높고, 자녀 수가 적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가중 표본에서는 관측 표본에서의 차이가 조정되었다. 다만, 48코호트의 횡단관계 분석에서 가구특성 요인들이 결과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특성의 변화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도 두 코호트의 관측 표본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48코호트는 40코호트에 비해 주된 일자리를 늦게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고, 제조업에 종사한 비중이 감소한 대신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늘었다.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과 기타 종사상 지위를 주로 경험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상용 임금근로자를 경험한 비중은 증가하였다. 다만, 다른 특성과 달리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재가중 표본에서도 40코호트 표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남았다. 재가중 표본은 40코호트에 비해 제조업에 주로 종사한 비중이 적었고,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한 비중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재가중 분해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48코호트의 변수 간 횡단적 관계 분석에서 두 변수는 고령자 고용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재가중 표본이 48코호트의 관측 표본보다는 40코호트의 설명변수 분포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는 두 출생 코호트의 고령자가 근로생애 동안 경험한 노동궤적의 유형이다. 앞서도 제시하였지만, 48코호트는 40코호트에 비해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한 비중이 감소하고, 20대와 3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노동궤적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근로 집단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재가중치를 적용한 가상 표본에서는 40코호트 관측 표본과의 특성 차이가 대부분 사라졌으며, 비근로 집단의 비중만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요약하면, 48코호트의 설명변수 분포가 40코호트와 유사한 분포가 되도록 재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40코호트의 설명변

수 분포와 상당히 비슷하게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재가중치를 사용하여 설명변수의 순서에 따라 재가중 표본들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가중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근로생애의 노동계적 변화가 고령자 고용률에 미친 영향

<표 4-8>은 40코호트의 2008년 고용률과 48코호트의 2016년 고용률 간 차이에 대한 집계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63~69세 연령집단의 고용률은 40코호트 37.1%에서 48코호트 47.2%로 8년 사이에 10.1%p 증가했다. 48코호트의 설명변수 분포에 재가중치를 적용한 가상 표본의 고용률은 41.0%이며, 이 표본은 40코호트와 동일한 설명변수 분포를 지닌다. 재가중 표본과 40코호트 관측 표본의 고용률 차이는 설명변수의 분포 외의 다른 영향으로 인한 차이를 의미하므로, 집계분해의 구조효과는 3.9%p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48코호트의 관측 표본과 재가중 표본은 설명변수의 분포만 차이가 있고 다른 요인은 동일한 표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두 표본의 고용률 차이인 6.2%p가 구성효과가 된다. 따라서 40코호트와 48코호트 사이의 고령자 고용률 변화는 설명변수의 특성 차이로 인한 변화가 61.4%,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차이가 38.6%를 각각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 하위집단에서의 집계분해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남성 고령자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특성 차이가 고용률 차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간 관계 변화를 포함한 기

<표 4-8> 고령 고용률 변화의 집계분해 결과

(단위: %, %p)

	1940~ 46년생 (2008)	1948~ 54년생 (2016)	재가중 표본	집계분해 결과	
				구성효과	구조효과
전 체	37.1	47.2	41.0	6.2(61.4)	3.9(38.6)
남성	51.9	63.5	63.7	0.3(2.6)	11.3(97.4)
여성	24.0	30.9	21.9	8.5(123.2)	-1.6(-23.2)

주: 괄호 안은 2008년과 2016년의 전체 고령자 고용률 변화 대비 각 효과의 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타 요인의 차이가 고용률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반면, 여성 고령자 집단에서는 설명변수의 특성 변화가 코호트 간 고용률 차이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분석대상 기간에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6.9%p 높아졌지만, 구조효과는 오히려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가중 분해분석의 집계분해는 여러 설명변수들의 집합적인 분포 차이를 조정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정 설명변수의 변화가 결과변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구분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의 영향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구조효과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요인들의 분포 변화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중 분해분석의 세부분해를 통해서, 근로생애 노동계적의 변화가 고령자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9>에 정리하였다.

<표 4-9> 고령 고용률 변화의 세부분해 결과

(단위: %, %p)

		1948~ 54년생 (2016)	재가중 표본 1	재가중 표본 2	재가중 표본 3	재가중 표본 4	1940~ 46년생 (2008)
전체	고용률 차이	47.2	44.9 -2.3*	44.0 -0.9	47.2 +3.2	41.0 -6.2**	37.1
남성	고용률 차이	63.5	64.4 +0.9	63.0 -1.4	67.0 +4.0*	63.2 -3.8*	51.9
여성	고용률 차이	30.9	26.5 -4.4**	26.8 +0.3	28.9 +2.1	22.4 -6.5*	24.0

주: 재가중 표본은 순서대로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 특성(결혼지위, 자녀 수, 거주지역), 노동시장 특성(주된 일자리, 주된 산업, 주된 종사상 지위),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수들의 분포를 조정하였음.

***: p<.001, **: p<.01, *: p<.05, †: p<.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하위집단에서의 코호트 간 특성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근로생애의 노동계적에서도 남성 고령자에 비해 여성 고령자 집단에서의 유형 차이가 크고 다양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 외에 교육수준의 향상, 자녀 수의 변화 등이 여성 고령자 집단에서의 구성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가중 표본 1과 48코호트의 차이는 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48코호트의 설명변수 분포에서 여성이 늘고, 연령이 높아지고, 학력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의 조정은 고령자 고용률을 2.3%p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²¹⁾ 남성 고령자에 비해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이 낮다는 점,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이다. 성별 하위집단에서의 차이는 연령과 교육수준의 분포만 조정한 결과를 의미하며, 여성 고령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 고령자 집단에서 학력 수준의 변화가 더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가중 표본 1과 재가중 표본 2의 고용률 차이는 인구학적 특성에 추가로 가구 특성의 분포를 조정한 경우의 고용률 변화 정도를 보여준다. 가구 특성의 변화는 전체 분석대상과 성별 하위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유배우자 비중의 증가로 인한 고용률 증가의 효과와 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의 증가로 인한 고용률 감소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었을 수 있다.

재가중 표본 2와 재가중 표본 3의 고용률 차이는 노동시장 특성의 분포 차이로 인한 고용률 변화 정도를 의미하며, 남성 고령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48코호트는 40코호트에 비해 주된 일자리를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서비스업을 경험한 비중이 많아졌으며, 상용 임금근로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 재가중치의 적용은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농업 종사자의 비중을 높이고, 고령기에 노동참여가 낮은 상용 임금근로자 출신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가중 표본 3과 재가중 표본 4의 고용률 차이는 근로생애 동안의 노동계적 변화가 고령자 고용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며, 전체 분석대상과 성별 하위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측되었다.

21) 재가중 분해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는 Fortin et al.(2011: 68)이 제시한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표준오차를 추정하여 확인하였다. 각 재가중 표본별로 1,000회씩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치를 저장한 후, 해당 통계치의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체 분석대상에서 48코호트는 재가중치의 적용으로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이 증가하고, 2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은 감소하며, 비근로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동계적의 분포가 조정되었다. 이 중에서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중의 증가는 고령기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2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한 비중이 감소한 변화와 비근로 집단이 많아지는 변화는 고령기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상반된 두 효과가 서로를 상쇄한 후에도, 후자의 고용률 감소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 고용률이 6.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생애 노동계적의 분포 변화로 인한 고용률의 변화 정도는 남성 고령자보다 여성 고령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 고령자 집단은 두 코호트 표본에서의 근로생애 변화가 특정 노동계적에 집중되어 전체적인 변화 정도가 적었던 반면, 여성 고령자 집단은 여러 노동계적에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제4절 소 결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40~46년생 코호트와 1948~54년생 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계적 변화가 63~69세 시기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DiNardo et al.(1996)이 제시한 재가중 분해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두 집단 간 결과변수의 차이를 설명변수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포함한 다른 요인의 차이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여준다. 재가중 분해분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결과변수인 고용률과 연구에서 다루는 설명변수들의 코호트 간 차이를 기술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2008년과 2016년의 시점에서 각각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간 횡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재가중 분해분석에서는 코호트 간 고용률 변화를 구성효과와 구조효과로 구분한 집계분해 분석결과와, 개별 설명변수군의 분포

변화가 전체 구성효과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주는 세부분해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제가중 분해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0코호트와 48코호트의 63~69세 시기 고용률은 37.1%에서 47.2%로 10.1%p 증가했으며, 이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는 전체 고용률 차이의 61.4%를 설명하였다. 연구에서 고령자의 고용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설명변수 차이의 영향이 상당한 정도로 관측된 것은 근로생애의 노동궤적이 다른 요인에 비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두 코호트의 시간 간격이 8년에 불과함에도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 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코호트의 고령자 고용률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구성효과와 구조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두 출생코호트 간 근로생애 노동궤적의 차이는 고령자 고용률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계속 근로한 집단들은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았고, 생애과정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한 집단들은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낮았다. 1948~54년생 코호트는 1940~46년생 코호트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불안정한 노동궤적을 경험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3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의 고령기 고용률이 증가하였고, 불안정 노동궤적을 경험한 집단과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의 고용률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횡단적 관계의 변화 추이가 지속되면, 근로생애의 노동궤적이 다양한 집단으로 더 분화되더라도, 그러한 노동궤적의 차이가 고령기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성별 하위집단에서는 집계분해와 세부분해 모두 매우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남성 고령자 집단은 구성효과보다 구조효과의 크기가 훨씬 컸지만, 여성 고령자 집단은 반대로 구성효과가 구조효과를 압도하였다. 세부분해에서도 남성 고령자 집단은 노동시장 특성의 변화가, 여성 고령자 집단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가 고령자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표 4-10〉 베이비붐 세대(1955~61년생)의 근로생애 노동계직

노동계직	%	노동계직	%
10대부터 계속 근로	24.1	진입 후 이탈	10.7
20대부터 계속 근로	22.8	이탈 후 재진입	15.0
30대부터 계속 근로	9.1	비근로	6.2
불안정 근로	12.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에서 집단 내 이질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근로생애의 노동계직이 관측된 집단의 고령 시기 고용률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제3장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인 1955~61년생 코호트가 15~50세 기간 동안 경험한 노동계직은 〈표 4-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40~46년생 코호트, 1948~54년생 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계직과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춰지던 경향은 일부 반전되었고, 계속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1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계속 근로한 집단의 비중은 24.1%로 직전 코호트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20대 혹은 30대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계속 근로한 집단의 비중은 각각 22.8%와 9.1%로 1948~54년생 코호트에 비해 감소하였다. 대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재진입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는 변화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생애의 노동계직과 고령기 노동참여의 관계가 이후에도 1948~54년생 코호트의 횡단적 관계 분석결과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근로생애의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기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은 다르지만 근로생애의 안정적인 노동참여가 고령기까지 이어진 집단들 가운데, 두 집단(20대부터 근로, 30대부터 근로)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고령기의 노동참여가

낮은 불안정 노동계약 집단들의 비중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4-5>에서 확인한 근로생애와 고령자 고용률의 관계에 기초하여 단순 계산하면, 1955~61년생 코호트는 1948~54년생 코호트에 비해 63~69세 시기의 고용률이 약 3.5%p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같은 표에서 보여주듯이 근로생애와 고령기 고용률의 관계는 코호트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보였고,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는 또 다른 관계가 관측될 것이다. 또한, 고령기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요인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결국, 이후의 고령자 고용률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정보, 영향요인의 분포 변화에 대한 정보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경험한 근로생애의 노동계약이 해당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것이 이후의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근로연령대의 노동궤적과 고령기의 노동궤적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령자의 근로생애 전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생애 초기의 노동시장 경력은 일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근로생애 동안 누적된 경력은 고령자의 숙련 수준과 경제적 욕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 사회와 같이 분절적인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생애 초·중기의 노동궤적이 가지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기 전·후의 노동 경력 특성을 비교하여, 근로생애와 고령기의 노동궤적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 시점의 고령노동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동시에, 현재까지 관측된 청·중년기 노동궤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고령노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는 생애주기 관점에 따라 코호트별 노동궤적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 조사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궤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940년생부터 1964년생 남성들은 가족을 형성하는 20대 후반 무렵부터 30대 초반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50대, 자녀 세대의 독립으로 가족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유급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가족

의 생계 부양책임을 도맡아왔다. 한편, 남성과 여성 간에는 고용률 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하여, 남성의 고용률이 현저하게 높다. 특히, 가족의 형성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측면과 맞물려 있다. 여성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은 대체로 모든 코호트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인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다만, 40대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후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50대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20대에서 30대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기도 하다. 성별 분업 구조 하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출산과 자녀 돌봄이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간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1950년대생 코호트까지에 한정할 때, 평균적인 수준에서 남성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사가 다소 빨라져, 50대부터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에도 고령자들은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60대까지는 다수의 고령자가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환위기의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인다. 조직에서 요직에 포진하고 있던 1940년대생들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견고한 성별 분업 체계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성 가장의 급작스러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로, 노후 불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핵심 노동 계층을 구성하던 시기에 공적연금이 도입되긴 하였지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적지 않은 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는 남녀 공히 혼인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균적인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인다. 30% 수

준에 그치던 40년대 초반 코호트 여성의 고용률이 1960년대생 코호트에 이르러서는 40%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게 된 40대 후반 무렵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20~30대에서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다른 한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남성들의 고용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은, 가구 단위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 면도 있어 보인다. 남녀 간 초혼 연령에 약 3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 코호트들과 달리 1950년대생 후반 및 1960년대생 코호트에서 여성들이 40대부터 50대까지 꾸준히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40~54년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근로궤적을 분석하여,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고령화패널조사의 직업력조사 자료와 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해 개인이 15세부터 최장 68세(1954년생 62세)까지 경험한 취업 여부 상태 변화 배열자료를 구축하여, 15~68세까지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근로생애(15~50세)와 은퇴과정(51~68세)으로 각각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는 종단적잠재분석방법인 GBTA(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3개의 출생코호트로 구분하였으며, 1940~44년생(이후 40코호트)이 1,290명, 1945~49년생(이후 45코호트)이 1,239명, 1950~54년생(이후 50코호트)이 1,261명이었다.

15세부터 50세까지 근로생애를 유형화한 결과, 7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20대부터 일자리에 진입해 계속 일을 유지하는 유형(‘20대부터 근로’, 27.9%)이었다. 이어서 10대부터 근로(27.5%), ‘진입 후 이탈’(10.4%), ‘30대부터 근로’(10.4%), ‘불안정 근로’(8.8%), ‘근로 경험 없음’(8.4%), ‘이탈 후 재진입’(6.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0코호트는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10대보다는 20대부터 일을 시작한 유형이 더 많았고, ‘이탈 후 재진입 유형’과 ‘진입 후 이탈 유형’이 증가하고 ‘근로경험 없음 유형’은 감소했다.

51~68세까지 은퇴과정을 유형화한 결과, 5개의 유형 - ‘계속 근로’, ‘가

교 일자리’,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근로 안 함’-이 도출되었으며, 60대까지 계속 일하는 ‘계속 근로’ 유형이 34.8%, 일하지 않는 경우(‘근로 안 함’, 27.2%), ‘60대부터 점진적 은퇴’(16.3%), ‘50대부터 점진적 은퇴’(14.4%), ‘가교 일자리’(7.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코호트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가교 일자리 유형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정형화된 은퇴유형인 ‘6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은 40코호트와 45코호트보다 50코호트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조기은퇴 유형인 ‘50대부터 점진적 은퇴 유형’은 40코호트 15.3%, 45코호트 16.8%로 50코호트(11.2%)보다 높았는데,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퇴과정은 15~50세까지 경험한 근로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른 시기부터 일을 한 경우 중고령기에도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경험한 경우 중고령기에 점진적 은퇴, 가교일자리 유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은퇴과정의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해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근로생애와 은퇴과정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확충과 활기찬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일과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령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재가중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1940~46년생 코호트(이하 40코호트)와 1948~54년생 코호트(이하 48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취적 변화가 63~69세 시기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가중 분해방법은 두 집단 간 결과변수의 차이를 설명변수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포함한 다른 요인의 차이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여준다. 재가중 분해분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결과변수인 고용률과 연구에서 다루는 설명변수들의 코호트 간 차이를 기술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2008년과 2016년의 시점에서 각각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2008~2016년에 두 분석대상 코호트의 고용률은 37.1%에서 47.2%로

높아졌으며, 근로생애의 노동궤적 특성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두 시점에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 분석에서는 근로생애에 안정적인 고용을 지속한 집단이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40코호트에 비해 48코호트에서는 근로생애의 차이가 고령자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계가중 분해분석의 집계분해 결과에서는 두 코호트 간 고용률 차이의 61.4%가 연구에 포함된 설명변수(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가구 특성-결혼지위, 자녀 수, 거주지역/노동시장 특성-주된 일자리 진입 시점, 주로 경험한 산업, 주로 경험한 종사상 지위)와 근로생애의 노동궤적 변화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코호트의 고령자 고용률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성효과와 구조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출생 코호트의 근로생애 노동궤적 차이는 고령자 고용률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계속 근로한 집단들은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았고, 생애과정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한 집단들은 고령기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낮았다.

성별 하위집단에서는 집계분해와 세부분해 모두 매우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남성 고령자 집단은 구성효과보다 구조효과의 크기가 훨씬 컸지만, 여성 고령자 집단은 반대로 구성효과가 구조효과를 압도하였다. 세부분해에서도 남성 고령자 집단은 노동시장 특성이, 여성 고령자 집단은 인구학적 특성이 고령자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하위 집단별 차이는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집단 내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로생애의 노동궤적이 관측된 집단의 향후 고령기 고용률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베이비붐 세대에 적용하면, 변수들의 관계 및 다른 특성들이 동일하게 고정된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생애 동안 경험한 노동궤적은 고령기의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 시기의 근로생애가 이후의 노동계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생애과정 관점을 뒷받침할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측된 근로생애의 계적을 통해 향후의 고령자 고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 김수정(2018), 「1990년대 이후 코호트 간 소득 격차와 빈곤위험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pp.69~102.
-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 (2), pp.36~59.
- 김은석·장서영·심우정·오찬호·하지영·송순영(2014),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보고서(1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오찬호·심우정·하지영(2015),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2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양안나·오찬호·장서영·하지영·송스란(2016),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3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양안나·장서영·하지영·송스란(2017),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4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태현(2010), 「[기획주제]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NPS] 연금포럼, 37, pp.4~11.
- 남재량·박기성(2010),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10 (4), pp.65~99.
- 문혜진(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 (3), pp.349~378.
- _____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 (1), pp.201~226.
- 박경하(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다양성과 불

- 평등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 (3), pp.349~378.
- 박시내·심규호(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2010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1권』(제4장), 통계개발원.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 (2), pp.47~78.
- 방하남·강석훈·신동균·안중범·이정우·권문일(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 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균(2013),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33 (2), pp.5~32.
- 신화연(2015),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재정전망」, 『보건복지포럼』 6, pp.15~25.
- 우해봉(2011),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한 중고령층의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 연구」, 『조사연구』 12 (1), pp.65~88.
- _____ (2013), 「중고령층의 생애과정 분석: 분화와 탈정형화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 (2), pp.35~61.
- 이승호(2019), 『한국 노인 노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08~2016년 고용률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원진(2018),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 동거와 사적이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의규·김삼수·최지희·윤여인(2010), 『고령인력개발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철승(2019), 『불평등의 세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철희(2006), 『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4),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이영훈 편,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제7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지연(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1』,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전상진(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

- 한 고찰], 『한국사회학』 38 (5), pp.31~52.
- 조동훈(2015),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5 (1), pp.1~25.
- 조성남·박숙미(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9, pp.39~68.
- 최옥금(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에 관한 연구: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 (1), pp.15~31.
- 통계청(2010), 『201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_____(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_____. 「장래인구추계」.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인구센서스」.
- 한경혜(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 (3), pp.86~118.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홍백의·김혜연(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 (1), pp.291~319.
- 황수경(2012),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 Altonji, J. G., P. Bharadwaj, and F. Lange(2012),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youth: Implications for adult outcom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0 (4), pp.783~828.
- Alwin, D. F. and R. J. McCammon(2003), “Generations, cohorts, and social change,”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23~49), Springer, Boston, MA.
- Bell, A. and K. Jones(2013), “The impossibility of separating age, period

- and cohort effects,” *Social Science & Medicine* 93, pp.163~165.
- _____ (2014), “Another ‘futile quest’? A simulation study of Yang and Land’s Hierarchical Age-Period-Cohort model,” *Demographic Research* 30, pp.333~360.
- Bengtson, V. L., G. H. Elder, and N. M. Putney(2005), “The lifecourse perspective on ageing : Linked lives, timing, and history,” in M. L. Johnson, V. L. Bengtson, P. G. Coleman, & L. Kirkwood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ge and Ageing* (pp.493~501),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ck, D., Y. P. Tseng, and R. Wilkins(2011), “Do chang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plain declining male employment rates? Examination of the Australian case using a propensity score re-weighting decomposition approach,” *Applied Economics* 43 (28), pp.4215~4226.
- Blau, D. M. and R. M. Goodstein(2010), “Can social security explain trend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en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 (2), pp.328~363.
- Brink, K. E. and M. M. Zondag(2019), “Examining job attribute preferences across three generational cohor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doi : 0894845319837384.
- Brown, T. H. and D. F. Warner(2008), “Divergent pathways? Racial/ethnic differences in older women’s labor force withdrawal,”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63B (3), S122~S134.
- Calvo, E.(2006), “Does working longer make people healthier and happier?,” MPRA paper, Centre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Coile, C.(2015), “Economic determinants of workers’ retirement decision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9 (4), pp.830~853.
- Coile, C., K. S. Milligan, and D. A. Wise(2018),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 Working Longer-*

- Introduction and Summary (No. w2458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ewilde, C.(2003), “A life-course perspective on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 (1), pp.109~128.
- DiNardo, B. Y. J., N. M. Fortin, and T. Lemieux(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 (5), pp.1001~1044.
- Dingemans, E., K. Henkens, and H. V. Solinge(2016), “Access to bridge employment: Who finds and who does not find work afte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56 (4), pp.630~640.
- Ebbinghaus, B.(2006), *Reforming Early Retirement in Europe, Japan and the USA*, Oxford University Press.
- Elder, G. H.(1985), *Life Course Dynamics :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NY/London : Cornell Univ. Press.
- _____(1995), “The life course paradigm: Social change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 Moen, Elder, &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s :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01~139.
- Elder, G. H., M. Kirkpatrick Johnson, and R. Crosnoe(200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in J. T. Mortimer & M. J.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3~19), New York, NY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Elder G. H. and E. K. Pavalko(1993),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48 (4), pp.S180~S191.
- Fortin, N., T. Lemieux, and S. Firpo(2011), “Decomposition methods in economics,” in Ashenfelter &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4A, pp.1~102, Elsevier North Holland.
- Fournier, G., H. Zimmermann, and C. Gauthier(2011), “Instable career paths among workers 45 and over : Insight gained from long-

- term career trajectories," *Journal of Aging Studies* 25 (3), pp.316~327.
- Han, S. K. and P. Moen(1999), "Clocking out: Temporal patterning of reti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 pp.191~236.
- Hareven, T. K.(1994), "Aging and generational relations: A historical and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 (1), pp.437~461.
- Hayward, M. D., S. Friedman, and H. Chen(1998), "Career trajectories and older men's retiremen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3 (2), pp.S91~S103.
- Hernæs, E., S. Markussen, J. Piggott, and K. Røed(2016), "Pension reform and labo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2, pp.39~55.
- Howe, N. and W. Strauss(2000), *Millennials Rising: The next great generation*, Vintage.
- Kertzer, D. I.(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 pp.125~149.
- Kowske, B. J., R. Rasch, and J. Wiley(2010), "Millennials'(lack of) attitude problem: An empirical examination of generational effects on work attitud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5 (2), pp.265~279.
- Ku, I., W. Lee, S. Lee, and K. Han(2018), "The role of family behaviors in determining income distribution: The case of South Korea," *Demography* 55 (3), pp.877~899.
- Lee, C.(2010),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Korea: 1955~2005," in Ito & Rose (ed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 in East Asia* 19, NBER-EASE.
- Moen, P.(1996),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retirement, gender, and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 (2),

- pp.131~144.
- Nagin, D. S.(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2019),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indicator), doi:10.1787/8a801325-en (Accessed on 30 June 2019).
- _____(2006),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Live longer, work longer»*, Paris, France: OECD Publications.
- Quinn, J.(1996), The role of bridge jobs in the retirement patterns of older Americans in the 1990s, *Working Papers in Economics*, 309.
- Ryder, N. B.(198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In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Springer, New York, NY, pp.9~44.
- Schwadel, P. and M. Stout(2012),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on social capital,” *Social Forces* 91 (1), pp.233~252.
- Settersten, R. A. and L. Gannon(2009), “Structure, agency, and the space between: On the challenges and contradictions of a blended view of the life course,” in W. R. Heinz, J. Huinink, & A. Weymann (eds.), *The Life Course Reader: Individuals and Societies Across Time* (pp.456~472),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ngh, G. and A. Verma(2003), “Work history and later life labor force participation: Evidence from a large telecommunications firm,”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6 (4), pp.699~715.
- Slavick, F.(1966), *Compulsory and Flexible Retirement in the American Economy*, Cornell University Press.
- Strauss, W. and N. Howe(1991),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 William Morrow & Co.
- Treuren, G. and K. Anderson(2010), “The employment expectations of different age cohorts: Is Generation Y really that different?,”

-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9 (2), pp.49~61.
- Van Winkle, Z. and A. Fasang(2016), "Complexity in Employment Life Courses i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ury—Large Cross-National Differences but Little Change across Birth Cohorts," *Social Forces* 96 (1), pp.1~29.
- Wang, M. and K. Shultz(2010), "Employee retirement: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 *Journal of Management* 36 (1), pp.172~206.
- Warren, J. R., L. Luo, A. Halpern-Manners, J. M. Raymo, and A. Palloni(2015), "Do different methods for modeling age-graded trajectories yield consistent and valid result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0 (6), p.1809.
- Wong, K. T., V. Zheng, and P. Wan(2017), "A dissatisfied generation? An age-period-cohort analysis of the political satisfaction of youth in Hong Kong from 1997 to 2014,"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0 (1), pp.253~276.
- Yang, Y.(2011), "Aging, cohorts, and methods," in R. H. Binstock & L.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17~30),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380880-6.00002-2>.
- Yang, Y. and K. C. Land(2006), "A mixed models approach to the age period cohort analysis of repeated cross section surveys, with an application to data on trends in verbal test scores," *Sociological Methodology* 36 (1), pp.75~97.

◆ 執筆陣

- 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변금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근로생애와 고령노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19년 12월 26일 인쇄
2019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배 규 식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9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395-2